

‘The-K’의 첫 번째 가치는 언제나 당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50년, 슬로건은 달라졌지만 그 속에 담긴 The-K의 진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The-K입니다.



The·K 한국교직원공제회

- The·K 호텔앤리조트
- The·K 제주호텔
- The·K 저축은행
- The·K 교직원나라
- The·K 소피아그린
- The·K 손해보험
- The·K 서드에이지
- The·K 에다함상조



여는 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힘

아름다운 동행

박점숙 안산성호중 교장 · 신정숙 성남 서현중 진로부장

Interview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CONTENTS

2019 JANUARY VOL.17



The-K

VOL.17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4	새해 메시지
6	여는 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힘
8	Essay 서른 넘어 다시 쓰는, 나를 위한 일기 이준수 강원 도계초 교사
10	Inside Out 2019 신년 운세, 점을 믿습니까?
12	Interview 미디어 시대에 더 건강하게 사는 법 유현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18	Interview 반짝이는 우리의 보물, 온 마을이 함께 키우다 김현미 충북 옥천 안내초 교사
22	아름다운 동행 그대와 함께한 모든 게 좋습니다 박점숙 안산성호중 교장 & 신정숙 성남 서현중 진로부장

28	만 나라 교육 편지 세계의 배꼽, 페루 쿠스코에서 채송이 서울 휘경중 교사
32	트렌드 Go Go 트렌드의 트렌드를 엿본다
34	행복 만들기 행복을 연주하고 정을 나누는 인천광역시 초등 관리직 밴드 '더블루'
38	네오필리아 지구촌의 새해맞이
40	브랜뉴 여행 도시 문화 산책 ⑤ 베네치아, 물이 차고 흐르는 삶에서
46	문화 산책 '길 없음'의 시대, 희망의 언어 찾기 신영복의 <담론>

48	꿈꿀 공간 공간의 변화, 꿈과 상상의 즐거움으로 경북 구미봉곡초
50	재테크 팩토리 서민 지갑 배려한 2019년 세법 개정안
52	The-K Focus 함께 부르는 평화의 노래 The-K은빛동행 'DMZ 철원 평화관광'
56	The-K Family 이 겨울, 눈꽃의 찬란을 담다 The-K지리산가족호텔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60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62	독자 이벤트 1월 즉석당첨 이벤트
63	편집실에서 띄우는 편지 빛이 고요롭기까지

발행인	차성수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발행일	2019년 1월 1일
편집	
기자	정수희 jsh@swadcom.co.kr
객원 기자	이경희 정라희 엄용선
교열	박해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서희지 heezees@swadcom.co.kr
디자이너	이은정 uncheang@swadcom.co.kr
사진	
포토그래퍼	한상무 황원 장병국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남다른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참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부는 새해에도 국민께 신뢰받는 교육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The-K 매거진> 애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따사로운 희망의 햇살이 활짝 비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간호섭 패션디자이너, 홍익대 섬유미술패션디자인과 교수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땀 흘리며 심 없이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년, 웬지 19란 숫자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합니다. 성년을 향한 마지막 도약처럼 활기찬 2019년이 기대됩니다.



여태전 남해 상주중 교장

또다시 새해를 맞이합니다. 따져보면 매일 '새날'이요, 매년 '새해'의 연속이지요. 어제와 다를 것 없는 오늘, 지난해와 다를 것 없는 새해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각오와 다짐, 새로운 기원과 희망을 품고 '새날 새해'를 맞이합니다. 부디 2019년 올해도 365일 '새날 새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심경희 안동서부초 병설유치원 교사

새해! 새날! 오늘은 우리 생애의 최고 젊은 날이니 어찌 감사하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사랑한다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날마다 꿈꾸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송승훈 남양주 광동고 교사

겨울에는 추위보다 햇살의 따스함을 먼저 느끼고, 여름에는 더위보다 바람의 시원함을 고마워하고, 그렇게 힘겨움과 함께하는 고마움을 나누며 한 해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Happy

20

New Year!

19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희망의 사다리였던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교원들도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지식과 역량을 끊임없이 다지기 위해 현장 일선에서 애쓰고 계십니다. 교원들이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튼튼한 디딤돌이 되고, 모든 학생의 꿈을 실현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힘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숫자는 달라졌지만,
 우리의 일상은 어제와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럼에도 설렘을 숨길 수 없습니다.
 새해는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이지요.

가장 어두운 밤도 끝날 것이다.
그리고 태양은 떠오를 것이다.
 빈센트 반 고흐는 새해 첫 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태양과 함께 새로이 시작하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힘은
 또 다른 모험의 길을 트는 것이니까요.

기대와 설렘으로 두근거리는 2019년.
 당신의 2019년, 모든 순간의 결정을 응원합니다.



서른 넘어 다시 쓰는, 나를 위한 일기

- 처음 시작할 때의 두근거림을 위해, 내면의 귀 기울임을 위해

글 이준수(강원 도계초 교사)

‘아, 다시는 10대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남들은 멋모르는 10대 시절이 제일 행복한 때라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고향 떠나 혈혈단신 대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도 전혀 슬프지 않았다. 내게 학교란 긴장되고 혼란스러운 곳이었다. 그저 의무로 다니는 우악스러운 정글을 빨리 졸업할 수 있기를 바랐다. 다만 유일한 탈출구가 있었으니, 바로 일기였다. 내 일기는 늘 두 가지였다. 하나는 선생님께 확인받는 일기장으로 혼나지 않을 수준의 내용을 적당한 분량으로 써서 제출했다. 대신 솔직한 생각을 담은 진짜 일기는 이면지 같은 데다 마구 갈겨쓴 다음 구겨버렸다. 구겨진 종이에겐 친구를 욕하거나, 짝사랑하는 여자애와의 가상 로맨스 따위가 적혀 있었는데, 그렇게 일기를 쓰고 나면 속이 후련했다. 그러면서도 혹시 누가 볼까 봐 후미진 하수구 구멍이나 소각용 쓰레기봉투 안에 속마음 일기를 쑤서 넣었다. 겉보기엔 순하고 말 잘 듣는 학생이었지만, 속으론 유희불을 품고 살던 소년은 글을 쓰면서 10대 시절을 버렸다.

글은 내 삶의 구원자였으며, 삶의 만족도를 가리키는 지표였다. 글을 많이 쓸수록 힘들다는 증거였다. 그러나 선생님이 되고, 결혼하고, 아이를 기르며 잠시 잊고 지냈다. 무언가를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좋은 날들이었다. 새로이 글 쓸 욕구가 솟은 건 교직 생활 7년 차, 서른 무렵이었다.

“수업도 재미없고, 아이들 미운 짓 하면 의욕도 떨어지고, 학부모까지 드세게 나오네... 요즘 학교 갈 맛이 영 안나.”

“너 그거 매너리즘이야. 까딱하면 오래간다.”

매너리즘, 선배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적한 감정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주말이면 월요일이 두려웠고, 하교하는 아이들 뒤통수가 가장 예뻐 보였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매너리즘에 빠진 게 확실했다. 인지적 혼란이 찾아왔다. 그 누구보다 교직이 적성에 잘 맞는다고 믿어온 나였다. 겨우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타성에 젖어 무기력해진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정신을 추슬러 학교에 정을 붙이려 해도 증세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돌연 사직서를 내고 그만두었다는 어느 선생님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았다.

‘내가 왜 이럴까. 그토록 교실을 좋아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러면 어떡해. 넌 딸까지 있는 아빠라고. 사표를 낼 수도 없고 도망칠 데도 없어.’

나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다. 아이들 수학 수행평가지를 매기다 말고 시험지 여백에다 떠오르는 문장을 쓰고 있었다. 스트레스받을 때마다 나오는 습관, 쓰기였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옛 친구를 만난 듯 기쁘고 설렘. 누가 어깨를 두드려준 것도, 안아준 것도 아닌데 뒤죽박죽 엉켜 있던 마음이 풀렸다. 그날부터 다시 일기를 썼다.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가감 없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천국은 가까이에 있었다. 며칠간은 내 기분만 썼다. 그러다 자연스레 학급 아이들 얘기를 함께 쓰게 되었다. 하루에 하나씩 눈에 띄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퇴근 후 글로 옮겼다. 말썽 피우며 담임 속을 뒤집는 녀석들도 곰곰이 뜯어보면 귀여운 구석이 있었다. 일기를 쓰다 말고 킥킥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어느새 출근길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신규 교사로 돌아간 느낌이었다.

“선생님, 내년에도 저희 반해주세요.”

2학기 마무리를 앞두고 담임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여러 번 받았다. 그저 일기를 썼을 뿐인데, 주위 사람들에게 아이들과 더 친해졌고 표정이 밝아졌다는 말을 들었다. 일기는 권태로움의 수렁에서 나를 건져냈다. 누군가에게는 춤이, 노래가, 그림이 그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 처음 시작한 무렵의 두근거림을 되찾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자. 잊고 지내던 소중한 무언가가 마음의 문을 툭툭 두드릴지 모른다.

이준수 강원 도계초 교사
사는 대로 쓰는 것도 맞지만,
쓰는 대로 살아진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강원 도계초에서
근무 중이며, 살면서 보고 느
낀 것을 기록하며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2019 신년 운세 믿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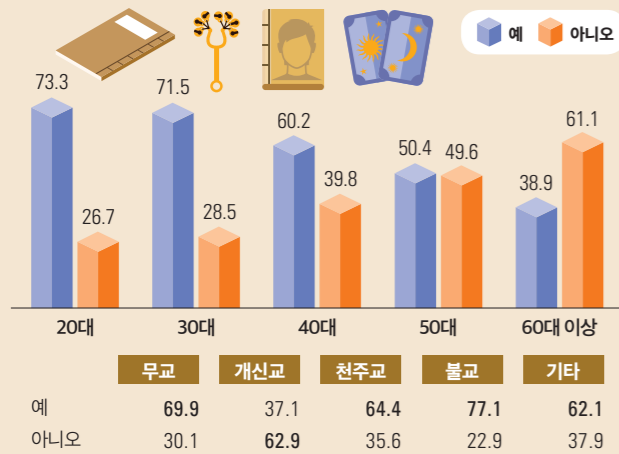
기해년 첫 날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한 해의 운세에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사주, 점, 토정비결, 관상 등 다양한 운세에 대한
공제회원의 생각을 알아봅니다.

기간 2018년 12월 3~5일
방법 e-mail을 통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설문 조사
대상 전국 공제회원 5777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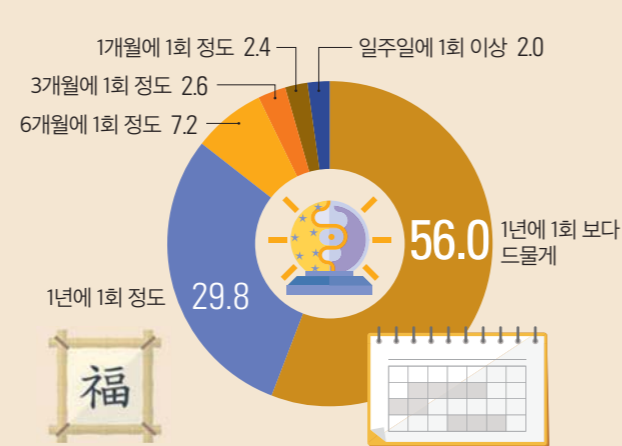
성별	남성	31.9
	여성	68.1
연령	20대	11.8
	30대	32.9
	40대	30.1
	50대	18.6
	60대 이상	6.6
직업	교원	56.1
	비교원	43.9
	유치원	2.4
	초등학교	30.0
	중학교	13.9
근무하는 직장	고등학교	16.7
	대학교(병원)	28.6
	교육 연구/행정/연구기관	6.3
	기타	2.2
	무교	44.4
종교	개신교	23.4
	천주교	14.0
	불교	14.7
	기타	3.5

(단위: %)

Q. 사주, 신점, 관상, 타로 등을 본 적 있습니까?



Q. 얼마나 자주 사주, 신점, 관상, 타로 등을 봅니까?



Q. 대개 운세를 보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연말연시 42.3
- 기타 24.5
- 결혼·취업·이사 등 중대사를 앞두고 23.3
- 부부나 애인 관계에 대해 알아볼 때 6.1
- 길몽·흉몽을 꿴 때 3.8

Q. 운세를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대 2개)

- 막연한 호기심에 34.2
 - 나의 운명과 미래가 궁금해서 33.5
 - 삶의 조안과 위안을 얻으려고 24.1
 - 별다른 의미 없이 재미를 얻기 위해 22.2
 - 스트레스와 고민을 풀기 위해 12.0
- 기타 순위
하는 일이 안 풀려서 10.0, 가족·지인 등 타인의 추천 4.3, 궁합을 알아보기 위해 3.4, 한 번 봤더니 정확하게 잘 맞아서 2.0, 타인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0.5, 기타 3.7



(단위: %)

Q. 운세를 볼 때 가장 선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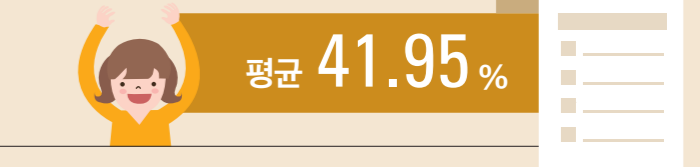
Q. 주로 운세를 보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인터넷 사이트 25.9
 - 철학관·역술원 방문 23.1
 - 사주 카페·노점 방문 11.3
 - 무속인 점집 방문 9.0
 - 사주·점·관상 등을 공부한 개인 8.5
- 기타 순위
신문 지면 및 인터넷 기사 7.7, 앱 6.0, 타로 카페 방문 4.1, 전화 0.4, 기타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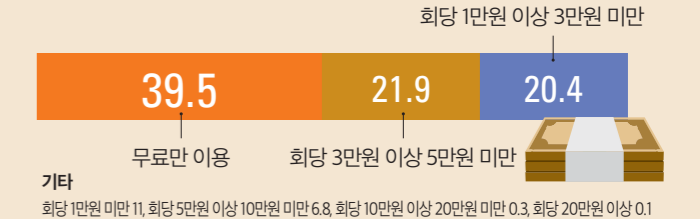
Q. 운세를 보는 방법 중 가장 신뢰하는 순서를 차례대로 골라주세요. (최대 3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사주풀이(궁합 포함)	90.0	85.6	80.7	78.1	72.3
토정비결	43.5	60.3	65.8	68.9	69.6
관상	49.5	39.4	41.9	40.1	48.6
신점	29.3	25.4	21.2	16.6	12.8
띠별 운세	12.6	15.9	21.0	28.7	25.7
타로점	26.1	24.0	15.6	9.9	6.8
손금	18.4	18.0	19.8	16.6	23.6
별자리 운세	9.6	10.7	10.2	7.9	6.1
풍수지리	6.6	6.0	9.7	14.0	17.6
기타	3.0	4.3	4.3	7.7	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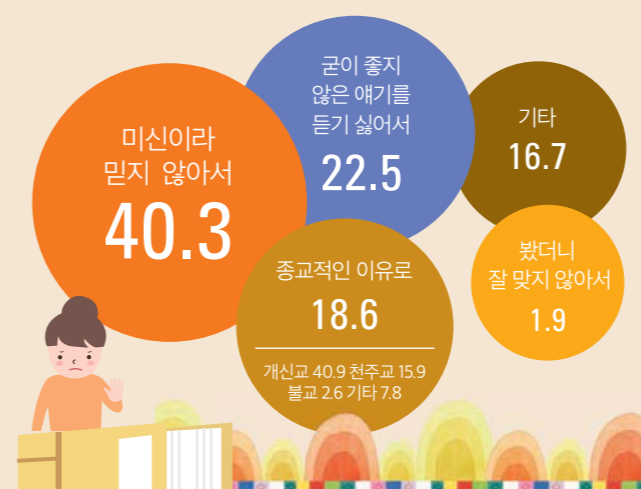
Q. 운세 결과를 얼마나 신뢰합니까? (주관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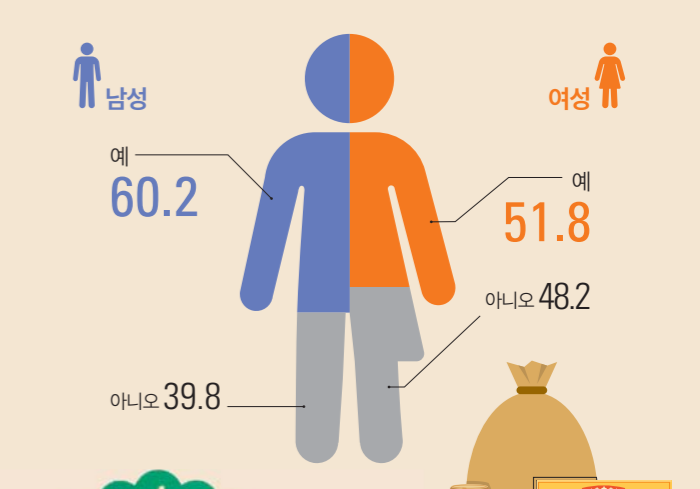
Q. 운세를 보는 비용은 얼마 정도입니까?



Q. 운세를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Q. 좋은 꿈을 꾸면 복권을 사는 편입니까?





미디어 시대에 더
건강하게 사는 법

유 현 재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2018년 초, 유현재 교수가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출연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있다.
바로 '미디어의 영향을 얼마나 받느냐는 것.
과연 이 질문에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범람하는 미디어 사이에서 좀 더 바르고
현명하게 건강 정보를 걸러 듣기 위해
유현재 교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글 정리희 사진 한상무

Yoo

Hyeonjae

미디어 속 건강 이야기

시작부터 확실히 짚고 가야겠다. 유현재 교수는 ‘건강 전문가’가 아니다. “서강대 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장이라던데?”라고 되물을 수 있겠다. 실제 그의 명함에는 ‘광고’와 함께 ‘헬스커뮤니케이션 전공’이라는 글자가 당당히 새겨져 있다. 그렇다면 헬스커뮤니케이션은 무엇일까?

“헬스커뮤니케이션 하면 진지하게 ‘피트니스클럽과 관련한 비즈니스인가?’ 하고 묻는 분이 실제로 있어요. 미국에서는 명문대에도 헬스커뮤니케이션 관련 학위 과정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오랜 역사를 지닌 학문 분야입니다.”

헬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조금 차이가 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건강과 관련한 인간의 모든 행위 가운데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을 다루는 학문’의 의미로 통용된다. 이런 활동이 왜 필요할까? 사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품이 어디에 좋다’라고 언급하면 해당 식품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고 시장에서 동이 나는 현상을 이미 여러 차례 경험했으니.

“미국에서 나온 헬스커뮤니케이션 이론을 한국에 접목하면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는 집단주의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각자 자기 원칙을 중시하거든요. ‘내 병은 내가 제일 잘 안다’는 말도 스스로 없이 하잖아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담배가 해롭다고 하면 ‘우리 삼촌은 평생 담배를 피우셨지만 아흔까지 장수하셨다’라고 당장 반박을 하죠.”

건강 프로그램의 홍수 속에 대중은 더욱 혼란을 겪는다. 최근 몇 년 사이 건강을 주제로 한 방송 프로그램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 건강 프로그램이 예능화되면서 올바른 정보에 대한 판단은 더욱 어려워졌다. 방송에서 의사와 비전문가가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비전문가가 제시한 개인적 체험 사례에 귀가 더 솔깃해지기도 한다. 우선은 건강 프로그램을 만들 때 더욱 철저한 감수가 이뤄지도록 규정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 시청자 스스로도 미디어가 전하는 건강 정보를 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즉 ‘미디어 문해력’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헬스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한 광고인

유현재 교수도 처음부터 헬스커뮤니케이션을 공부할 계획으로 미국 유학을 떠난 것은 아니다. 서강대에 부임하기 전, 유현재 교수는 오랜 기간 ‘광고인’으로 살았다. 제일기획에서 카피라이터로 8년간 근무하며 크고 작은 광고 카피를 직접 썼다. 이제는 꽤 오래전 이야기지만 KT 광고에 등장한 “유쾌, 상쾌, 통쾌”라는 카피가 그의 머리에서 나왔다.

“광고 카피에는 저작권이 없다 보니 지금은 그 카피가 변비약 광고에도 사용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글 쓰는 걸 좋아해 신춘문예에 투고도 했는데, 광고 공모전에서 여러 번 상을 받으면서 글도 쓰고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얻을 수 있는 광고계로 자연스럽게 진로를 정하게 되었죠. 그러다 휴직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무엇이든 그렇지만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지도교수님이 헬스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셔서 공부를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박사 과정까지 밟게 됐어요”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에서 3년간 교수 생활을 하고 있을 즈음, 한국에도 헬스커뮤니케이션이 점차 알려졌고, 한국의 몇몇 대학이 헬스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를 선발하기 시작했다. 서강대도 그중 한곳이었다. 이미 미국 영주권이 있었지만, 유현재 교수는 과감히 한국행을 택했다. 그리고 어느덧 서강대에서 9년째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마음 맞는 학생들과 함께 학내에 중앙광고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케팅은 물론 헬스커뮤니케이션 관련 수업도 했죠. 한국에 있으면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들어가 보건정책도 다시 공부했어요. 의사, 보건 전문가들과 다양한 측정 방법을 논의하다 보니 요즘 자주 언급되는 ‘융합’이란 게 되더군요.”

점으로 흩어져 있던 여러 경험을 선으로 이어가면서 융합의 의미를 깨달은 유현재 교수. 그래서 그는 학생에게도 “직업은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역시 어디선가 들은 말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무척 공감을 한다면서. 덕분에 그의 활동 영역도 예전에는 생각지 못한 지점으로 점점 가지를 뻗어가고 있다.



융합을 바탕으로 이루는 변화

유현재 교수가 생각하는 첫 융합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공동 수행한 ‘한국형 담뱃갑 경고 그림 개발’이다. 담배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는 취지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특정 전문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유현재 교수가 나서서 의사와 국제보건 전공자, 디자이너 등 각 분야 전문가를 모아 팀을 꾸렸다. 당시 국회에서도 “경고 그림이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일부 의견이 나오는 등 반대가 있었지만, 결국 수차례 시도 끝에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었다.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는 시도는 어떤 점에서 효과가 있을까?

“현재 정부에서 보건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분야가 금연이예요. 예전에는 교수들도 연구실에서 담배를 피웠지만, 지금 그러면 난리가 나죠. ‘담배가 해롭다’는 사회적 분위기





가 형성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디서 담배를 접을까요? 미디어 노출이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현재 교수는 2017년 편의점 광고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 청소년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고 시선 추적기를 달고 편의점에 들어가게 한 것. 과연 편의점 안에서 청소년들의 시선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은 어디였을까?

“1위는 당연히 편의점 직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담배 광고였어요. 설문 조사를 했다면 아이들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실제 미디어가 미치는 유해성을 입증하려면 이같은 실질적인 증거가 필요하죠.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이런 요소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올바른 미디어 활용법의 선순환을 향해

이런 그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곳도 속속 생기고 있다. 2017년에는 의미 깊은 수상 소식도 몇 차례 있었다. ‘세계자살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학생건강증진분야 표창장 수여식에서는 청소년 유해 미디어 환경 관련 연구 등에 대한 공로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그의 관심사는 점점 확장하고 있다. 분노 장애와 중독처럼 한국인에게 자주 나타나는 문제는 물론, 조병희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쓴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에서 다룬 여러 주제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현실적으로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들의 각성을 요구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시청자가 이를 분별하는 기준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선순환의 물꼬가 될 수 있는 까닭이다.

“의외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건강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해서 끼니를 자주 거르는 데다 동료끼리 일정을 맞추기도 쉽지 않아 혼자 밥 먹는 일도 부지기수고요. 그런 환경도 정신 건강에는 그리 긍정적이지 않죠. 새해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도 부족하지만 매일 조금씩은 운동을 하고 있다. 하루 40분씩 걷고,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면 전동 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킥보드를 타면서 움직이려 하고, 사회인 야구 동호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결국 변화는 자신에 대한 건강한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마음 맞는 학생들과 함께 학내에 중앙 광고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마케팅은 물론 헬스 커뮤니케이션 관련 수업도 했죠. 한국에 있으면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들어가 보건정책도 다시 공부했어요. 의사, 보건 전문가들과 다양한 측정 방법을 논의하다 보니 요즘 자주 언급되는 ‘융합’이란 게 되더군요.

”



반짝이는 우리의 보물, 온 마을이 함께 키우다

김현미 충북 옥천 안내초 교사

전교생이 모여도 고작 37명. 그러나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사람은 2000명이 넘는다. 교사와 마을 어른신의 보살핌 속에서 낭랑한 목소리로 책을 읽고 운동장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아이들. 말 그대로 '천국의 아이들'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정말 마을 전체가 필요할까? 그 답을 안내초등학교에서 찾아보았다.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Kim



선생님은 여기 얼마나 계시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냐, 영석이 키가 많이 컸네.” “지원이는 공부 잘하고 있냐?”

알록달록한 우비를 입은 아이들이 페인트 깡통과 붓을 든 채 학교로 찾아온 어른들에게 꾸벅꾸벅 열심히 인사를 했다. 아이들과 함께 학교 벽화 작업을 위해 교문에 들어선 사람들은 마을 이장님들, 면사무소 공무원들, 농협 직원들 그리고 마을 주민이었다. 꽤 많은 인원이지만 혹여 한 분이라도 놓칠 새라 아이들 모두가 부지런히 꾸벅거렸다.

우비를 입고 작업하느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땀을 줄줄 흘렸지만 아이들의 깔깔대는 웃음소리는 운동장을 찌렁찌렁 울렸다. 그런 아이들이 혹여 힘들어할까 봐 페인트 작업을 하면서도 신중하게 살피는 어른들의 눈길은 태양만큼이나 더 뜨겁다. 누가 뭐래도 우리 마을의 보물들이 저기서 꼬물거리고 있지 않은가. 지난해 여름, 그렇게 뜨거운 마을은 지금도 여전했다. 충북 옥천군 안내면에 위치한 안내초는 말 그대로 온 마을 사람이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곳이다. 학교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학부모는 열일 제쳐두고 찾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여럿의 힘이 필요하면 덩달아 마을 주민은 기꺼이 달려온다. 정덕묘 안내초 교장을 비롯해 모든 교사에게 마을 주민은 세상 천지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협력자로서 튼튼한 울타리인 것이다.

김현미 교사는 이를 신기해하는 취재진에게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살짝 미소를 짓는다. 그가 처음 안내초에 부임해온 때는 2013년. 당시만 해도 학교를 바라보는 마을 주민들의 시선은 조금은 경직되고 무관심에 가까운 눈길이었다. “옥천군 옥천읍내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안내초는 부임해 온 교사들이 오래 머물지 않는 곳으로 주변에 인식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부임해온 지 이틀이 지나서 2학년 아이가 제게 ‘선생님은 얼마나 계시다 가실 거예요?’라고 물어왔죠. 정을 주고 싶는데 줄까 말까 망설임이 가득한 눈빛이었어요.”

Hyeonmi



행복씨앗 학교, 행복을 싹틔우다

학교에 변화의 조짐이 보인 것은 안내초가 혁신학교로 지정되면서부터다. ‘행복씨앗’이라는 혁신학교가 되면서 마을과 함께 연계하는 사업을 고민하게 됐고, 그 과정을 통해 교사와 학부모, 주민 사이에 교육 공동체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초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바로 ‘다함께 돌자 안내 반바퀴!’라는 마을 교육 자료인 ‘마을 교과서’입니다. 안내초 교사 모두가 외지인인 상황에서 마을과 학교를 잇고 아이들에게 우리 동네를 제대로 가르치고 자부심도 갖게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고민했죠. 그러다 안내초 교원 동아리에서 ‘우리가 스스로 배우면서 자료를 만들어보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마을에 대해 교사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나 하면서요.” 지난해 3월, 충북도교육청에 계획서를 내고 예산을 받았다. 순조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했는데 고생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13개 리(里)로 구성된 안내면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는 탓이었다. 이렇다더러, 저렇다더러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만 떠돌 뿐이었다. 그때부터 안내초 교사들은 자료를 찾아야 마을, 저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다. 마을 어른신을 만나러 다니고 군청, 옥천문화원, 면사무소, 향토자료전시장까지 발로 뛰며 찾아다녔다. 그 기간만 꼬박 4개월이 걸렸고, 무더운 8월부터는 답사를 시작했다. 각 마을 이장님과 동행해 13개 리를 10여 차례 이상 방문하니 마을 주민에게 서서히 반응이 왔다.

“이장님들이 학교로 직접 찾아와 가르쳐주시고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교사들이 발로 뛰는 모습에 감동받으신 거죠. 여기에 정덕묘 교장선생님과 김영임 교감선생님의 헌신적인 노력도 크게 한몫했어요. 마을의 모든 대소사에 직접 참가하시고 하다못해 뒷집 김장할 때도 가서서 함께 배춧속을 넣으셨으니 주민들 모두가 놀란 거지요.”



학교의 모든 교사가 지금도 성심으로 열정을 쏟아붓고 아이들이 진학한 중학교에서 안내초 아이들은 인성도 좋고, 공부도 잘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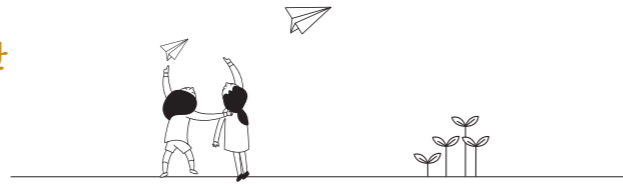


매일 더 행복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김현미 교사는 단언한다. “안내면 마을에서 우리 학교 아이들은 보물이다”라고. 전교생 수가 37명이면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는 작은 규모. 학교가 없어지면 주민이 빠져나가고 마을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서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다.

“학교와 마을 주민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무너지면서 이제는 13명의 이장님, 주민 모두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모든 일에 발 벗고 나서주십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학교에 오셔서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봐주세요. 또 교내에 학부모를 위한 야간 목공예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어른들이 목공예를 하면 따라온 아이들은 옆에서 동화 구연 수업을 하며 까르륵대는 거지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부모와 아이들 얘기, 학업 얘기를 나누게 되니 이제는 그냥 모든 학부모에게 학교란 큰마음 먹고 어렵게 찾아오는 곳이 아닌 매우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벽화 사업도 그랬다. 미술 교과서 첫 단원에 나오는 벽화 그리기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을 위해 마을 주민과 학부모, 교사는 힘을 모아 혁신교육지구사업공모전에 응모를 했고, 예산을 받아 전 마을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인 것이다.



안내초 출신으로 서울에서 미대를 나와 벽화 사업을 하던 분이 때마침 귀촌을 해 도움을 받기도 했다. 100년 가까운 학교 역사 속에서 담벼락과 벽면에 가득했던 이끼를 닦아내는 일은 마을 주민이 4~5개월에 걸쳐 수작업으로 해결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아이들을 위해 움직이는 시간이 켜켜이 쌓여갈수록 학교와 주민의 관계가 더욱 두터워지고 촘촘해진 것은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을 정도였다.

“교사로서 제가 가장 슬플 때는 외부에서 교사를 직업인으로 서만 볼 때였어요. 하지만 저희는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성장시켜야 한다는 직업보다 더 큰 사명감을 갖고 있어요. 그 일련의 과정에서 학부모님과 신뢰를 쌓았다는 게 정말 큰 기쁨입니다. 학원이 전혀 없는 마을에서 모든 교육을 공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과 가르침을 주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학교의 모든 교사가 지금도 성심으로 열정을 쏟아붓고 아이들이 진학한 중학교에서 안내초 아이들은 인성도 좋고, 공부도 잘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 그보다 더한 행복은 없지요.”

혁신학교 운영 담당자로서 소회를 털어놓는 김현미 교사의 얼굴에는 담벼락에 그려진 꽃 같은 미소가 그야말로 함박 피어난다.



월외리 이장이자 학부모회 회장을 맡고 있는 주도완 씨와 운영 위원회 위원장이자 담양리 이장인 이요셉 씨의 소회도 김현미 교사와 궂을 같이한다. 이 학교 졸업생이자 학부모이기도 한 이들이 학교 일에 동참한다는 것은 곧 아이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것임을 알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열과 성을 다하는 교장·교감 선생님, 교사에 대한 감사함과 감동 또한 마을 전체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됨을 밝히는 그들의 표정에서 우리 마을의 미래를 보듬고 살피며 지원하는 어른의 든든함이 물씬 풍겨져 나온다.

안내초 아이들은 오늘도 행복하다. 교사와 학부모, 마을 주민의 관심과 애정이 한겨울 눈처럼 펄펄 쏟아지니 어딜 가도 풍요롭고 어디에 있어도 즐겁기 때문이다.

“선생님이랑 마을 어른들이랑 늘 함께하니깐 어때요?”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거 같고 늘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6학년인 민중이와 지원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으하하하 웃는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 “선생님은 얼마나 계시다 가실 거예요?”라고 묻던 2학년 아이에서 6학년이 된 그 아이에게 “학교는 어떤 곳이니?”라고 묻자 이렇게 답한다.

“학교는 세계 집이에요.”





그대와 함께한 모든 게 좋습니다 우리의 새해 첫 나들이

안달하지 않는다. 조급해하지 않는다. 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는 굳이 눈의 거리를 확인하지 않아도 긴 세월 한결같이 굳건했다. 2003년 처음 만나 지금까지 가장 친밀한 교육계 동료이자 친구로 함께해온 그들의 시간은 여전히 차돌처럼 단단하고 자유롭게 흘러가고 있었다.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박점숙 안산성호중 교장 & **신정숙** 성남 서현중 진로부장



어른도 친구가 필요하다

저 멀리서 파란 치맛자락이 걸음걸이에 따라 일렁인다. 신정숙 서현중 진로부장이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박점숙 안산성호중 교장에게 그 풍경은 마치 영화의 필름 한 컷처럼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다.

신정숙 진로부장 역시 처음 만난 박점숙 교장을 기억하고 있었다. ‘기술가정’을 가르치는 같은 교과 담당이라는 동질감은 물론 첫인상이 무척이나 좋았기 때문이다.

“뭔가를 같이 하고 싶었어요.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어딜 가든 친하게 지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컬처 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박점숙 교장이 꼭 그 모임에 들어오길 바랐지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다. 함께 교육 연구를 하고, 공연을 보러 다니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으며 소소한 시간을 쌓았다. 우정은 쌓은 시간만큼 더 짙어졌다. 그 시간들은 두 사람의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개인 생활까지 두루두루 좋은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 박점숙 교장에게 에너지를 선물했다.

“2003년 당시 저는 남편의 사업 때문에 경북에서 경기로 전입해온 상황이었어요. 적응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니다. 문화가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지요. 심지어 아이들도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고 면박을 주기도 했어요.”

학생과 교사가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는 분위기를 견디지 못해 도로 내려갈까 고민하던 그를 다 잡아준 건 신정숙 교사다. 속사정은 자세히 몰랐지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존재 자체로 힘이 되어 준 그를 만나면서 박점숙 교장은 다시금 출근길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



고성의 바람, 고성의 바다를 느끼다

박점숙 교장이 사연을 보낼 때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오랜 교직 생활 동안 조퇴조차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칼같이 성실했던 신정숙 교사가 과연 연가를 내면서까지 동행할지가 걱정이었다.

“그런데 단번에 오케이를 외쳐주더라고요.(웃음) 돌이켜보면 늘 그랬습니다. 신정숙 교사는 제가 원하는 모든 일에 늘 흔쾌히 동의를 했고, 제가 뭔가를 하자고 하면 한 치의 고민이나 망설임 없이 함께 움직여줬어요. 한마디로 뭔가를 같이 할 맛이 나는 친구죠.”

두 동료가 마주보며 활짝 미소를 지었다. 서울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달려오면서 차 안에 가득 실고 온 두 사람의 기대와 즐거움은 굳이 논할 필요가 없었다.



첫 번째 목적지 고성 응봉으로 가는 길, 꽤 가파른 산길에서도 두 사람의 유쾌함은 멈출 줄 모른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파르지만 높지 않은 응봉 정상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모두가 입을 크게 벌렸다. 커다란 하트 모양을 한 화진포해변, 그 맞은편에 잇닿아 있는 화진포해변, 화진포둘레길까지, 호수와 바다, 숲길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 장대한 풍경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탁 트인 풍경에 그만 압도당한 것이다. 산꼭대기에 있는 작은 평상에 잠시 가부좌를 틀고 앉아 가슴 깊숙이 달디단 공기를 채우고, 스카프를 풀어 세차게 지나가는 바람을 한껏 담아내는 놀이가 이다지도 아이처럼 즐거울 수 없다. 다들 시작부터 신나라 하니 이번 여행의 끝이 벌써부터 아쉬웠다.



기쁨을 함께하는 우정

고성의 맛집 중 까다롭게 후보에 올린 곳으로 두 사람을 안내했다. 고성에서 소문난 맛집 ‘제비호 식당’에 모두가 자리를 잡고 앉아 도루묵구이와 도치알탕을 주문하자 맛깔스러운 밑반찬을 한 상 가득 차려준다. 가짓수도 넉넉하고 하나하나 감칠맛 나는 것이 주메뉴가 나오기도 전에 다들 밥 한 그릇을 푹딱할 기세다.

서로 주거나 받거나 팔이 닿지 않는 곳의 반찬을 나눠주고 서로에게 더 먹으라고 권하는 따뜻한 식사 자리가 정겹게 펼쳐지니 입맛이 더더욱 오른다. 더불어 사이사이 끼어드는 이야기들도 도루묵의 딱 찬 알 못지않게 흥미진진하다.

“첫 학교에서의 만남이 우리 우정의 시발점이었지만 두 번째 학교에서도 함께 근무한 게 큰 역할을 했어요. 도합 8년을 같은 학교에서 일했으니 보통 인연은 아닌 셈이지요.”

두 번째 학교에서 박점숙 교장은 담임을 맡았고, 신정숙 부장은 부장교사를 맡았다. 두 사람 모두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던 와중에 뜻밖의 일을 맞닥뜨렸다. 세간의 시선으로 보자면 둘의 우정이 시험대(?)에 오른 일종의 사건이었다.

“학교에서 고과를 주잖아요. 저나 박점숙 교장이 나 승진을 위해 고과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저한테는 주지 않고 박 교장에게 주더라고요. 사실 다른 사람이었다면 내 걸 챙기려고 했을 텐데 받은 사람이 박 교장이어서 좋았어요. 그냥 마음이

좋더라고요. 늘 이 친구가 잘되길 바랐으니까요.” 박점숙 교장은 미안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자신에게 먼저 다가와 “다른 사람이라면 섭섭했을 텐데 너여서 기분 좋게 됐다”라며 웃던 신정숙 부장의 미소를 지금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었다.

누가 그랬던가. 슬픔을 나누는 것보다 기쁨을 나누는 것이 더 힘든 일이라고. 진짜 친구란 바로 그 지점에서 알아보는 것이라고. 우정에도 굽이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이 최상급이리라.

모두가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다시 차에 올랐다. 오늘의 마지막 도착지는 공현진해수욕장이다. 바닷가에 왔으니 어찌 새파란 겨울 바다의 정취를 외면할까.

손을 담그면 파랗게 물들어버릴 것 같은 바다를 앞에 두고 두 친구가 하얀 백사장을 걸었다. 빨강계 모닥불을 피우고 통기타도 연주했다. 낮에 사둔 문어가 무쇠 프라이팬에서 잘 익어가니 오감이 행복하게 충족된다. 학창 시절 MT라도 온 듯 두 친구는 백사장의 조개를 들여다보고 기웃거리는 물새를 보며 웃음을 터뜨린다. 밝은 에너지와 활력이 나이와 연륜까지 가려버리니 지켜보는 제삼자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오늘도 서로의 장점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고, 아무에게도 하지 못할 이야기를 서로에게는 아낌없이 털어놓으며 삶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나눌 박점숙 교장과 신정숙 진로부장. 사랑도 우정도 하잘것없다고 낮춰 보는 식막한 이 세상에서 둘의 관계는 여전히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난다.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지금도 여전히 같이 꾸는 꿈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도 전에 모였다. 모두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 바로 일출이었다. 국내 최고 일출 명소로 꼽히는 읍바위에서 일출의 장대함을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 단단히 무장한 두 친구가 손을 꼭 잡은 채 읍바위를 향해 이동한다. 어느새 바닷가에는 일출을 찍기 위해 사진작가가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해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초조함은 하얀 백사장을 꽤나 뜨겁게 달궜다. "땀다!" 누군가의 외침에 다들 부리나케 뷰파인더를 바라보지만 저 멀리 두 친구의 그림자는 태양 앞에 한없이 작고 까맣게 보인다. 포토그래퍼는 신발과 양말을 빛의 속도로 벗어던지고 차가운 겨울 바다로 뛰어들었다. 두 친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근사한 사진을 선물하기 위해서다. "너무 멋있어요!" "영화속 한 장면 같아요!" 그렇게 탄생한 사진은 모두에게 아낌없는 찬사와 감탄을 받아냈다. 그러나 오늘의 영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화 <동주>를 찍은 왕곡마을에서는 주렁주렁 달린 감과 미처 땅속으로 숨지 못한 들꽃을 구경

하고 새 짚으로 차곡차곡 쌓인, 한겨울을 날 전통 가옥을 지켜보았다. 왕곡마을에서 유명한 갓 만든 유과도 맛보았다. 역사가 가득한 호수에서는 정태춘 씨의 '촛불'을 구성지게 부르고, 바닷가 암절벽 위에 세워진 청간정에서는 2019년 1월 달력을 직접 그려 서로에게 선물했다. 서로의 솜씨에 감탄을 연발하며 아이처럼 기뻐한다. 아아진 항에서 만난 해녀에게 구입한 방금 잡은 전복은 또 얼마나 싱싱한지. 한겨울의 꿈 같던 고성 여행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두 친구는 지금도 쉬지 않고 같은 꿈을 꾸다. 퇴직 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자는 것. 자식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세 살까지는 서로의 손으로 애지중지 키워보자는 것. 그려보는 미래조차 겹치는 두 사람. 오늘도 서로의 장점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고, 아무에게도 하지 못할 이야기를 서로에게는 아낌없이 털어놓으며 삶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나눌 박점숙 교장과 신정숙 진로부장. 사랑도 우정도 하잘것없다고 낮춰 보는 삭막한 이 세상에서 둘의 관계는 여전히 단단하고 아름답게 빛난다.

두 친구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응봉

고성에 가면 응봉 정상에 꼭 올라가 보자. 초입만 가파를 뿐 대체적으로 완만하고 높지 않은 길을 따라 걷다 보면 해발 122m 응봉 정상이 나온다. 그곳에서는 하트 모양의 화진포 호수와 바다, 저 멀리 대진항까지 구경할 수 있다. 새파란 하늘과 바다가 잇닿아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다.

📍 강원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제비호식당

거진항에서 제비호라는 배를 몰던 선장님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고성에 가면 꼭 한번 들러볼직하다. 생선 구이와 탕 종류가 유명하데 함께 나오는 밑반찬이 본 요리 못지않게 인기가 좋아 더 유명하다. 직접 담근 명란젓에 세 종류의 생선조림과 감자조림만 해도 밥 한 그릇이 딱딱이다.

📍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항길 29
☎ 033-682-1970



읍바위

읍바위, 일명 수뭇개로 불리는 이곳은 공현진해수욕장에 자리 잡고 있는 전국 최고의 일출 명소다. 1년 365일 일출을 찍으려는 사진가가 몰려들며 새해 첫날에도 첫 해를 맞으려는 모습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찾아온다.

📍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왕곡마을

고성 오봉리에는 전통건조물보존지구로 지정된 왕곡마을이 있다. 윤동주의 삶을 그린 영화 <동주>의 촬영 장소이기도 하다. 전통 한옥과 초가집이 보존되어 있는 옛 마을이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온 듯한 정취를 즐기기에 그만이다. 한과 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다.

📍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 033-631-2120



| 1박 2일 여행을 마치고 |

박점숙 교장

이번 여행은 제가 기대한 것보다 더 재미있었고,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한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 만난 순간, 첫인상, 공통점 등을 말하다 보니 '우리 둘은 정말 똑같구나' 하는 사실을 재확인했고, 관계의 끈끈함을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그동안 돌이켜 여행을 떠난 적이 꽤 많았는데 이번 '동행'은 드레스 코드를 처음 맞춰본 재미, 여행 내내 굉장히 역동적이었던 점, 우리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여행이라 매우 행복했어요. 인생을 반이나 살았는데 아직도 보고 배워야 할 게 많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더불어 매거진 하나가 나오는데 너무 많은 준비와 애씀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The-K 매거진>을 볼 때마다 그 이전까지도 생각하게 될 듯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일출 촬영 때였어요. 저 멀리서 촬영 준비를 하는 사람은 해 뜨는 시간을 맞춰야 하니 마음이 급했을 텐데 계속 조심히, 차근차근 이동하라고 말해주는 무전기 속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한마디하고 싶어요. "정숙아~ 사랑하고 고마워. 뭘 하든 흔쾌히 동의해주고 바로 답주고, 난 늘 너무 행복하다."

신정숙 부장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습니다. 제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행거서 실행할 수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구슬을 꿰어 귀한 보배를 선물로 준 친구에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이번 여행을 하면서 저 역시 <The-K 매거진>을 무심히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책 하나 만드는 데 많은 사람이 더불어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고, 무엇보다 그 과정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살면서 주인공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신혼여행 때도 패키지 가서 "여기 서세요", "다음 장소로 이동!" 떠밀려 다니며 사진을 찍었는데 이번 여행과 사진 촬영은 온전히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것이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첫날 산꼭대기에서 스카프를 바람에 휘날리는 경험을 처음 해봤는데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프하고 친절하며 스마트한 제 친구, 가장 솔직한 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친구, 구슬을 꿰어준 그대! 늘 고맙고 사랑합니다!



세계의 배꼽, 페루 쿠스코에서 보내는 편지

올라(Hola)! 안녕하세요. 저는 남미 페루 쿠스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채송이입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코아르(COAR) 학교는 페루 영재 기숙학교로 페루 각 주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저는 그중 쿠스코 지역의 코아르에서 근무합니다. 여기에서는 세컨더리아(secundaria) 3~5학년 학생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고교 1~3학년 정도입니다. 이곳은 이제 우기에 접어들어 이틀에 한 번씩은 꼭 비가 내립니다. 가끔 우박도 떨어지고요. 남미는 항상 제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구 반 바퀴를 돌아야 도착할 수 있는 대륙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습니다. 태초의 자연을 간직하고만 있을 것 같았죠. 언젠가는 그곳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싶은 막연한 꿈을 꾸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조금씩 스페인어를 공부했고, 해외 학교의 분위기도 알아보고 싶어 해외 교생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처음 꿈을 끈 지 8년 만에 국제국립교육원의 교사 해외 파견을 통해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글 사진 채송이(서울 휘경중 교사)



좌충우돌 쿠스코 적응기

쿠스코는 해발 34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쿠스코에 여행 온 한국 사람 중 많은 수가 고산병으로 힘들어합니다. 처음 도착한 뒤 며칠 동안은 별 증세가 없어서 '다행히 나는 고산 체질인가 보다' 했더니 이후 한 달 동안은 3일에 한 번꼴로 밤마다 헉헉대며 숨이 차 깨고는 했지요. 지금은 여기저기 마구 뛰어다녀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쿠스코 사람 다 되었죠.

학교는 쿠스코 근교의 푸시우라(Pucyura)라는 작은 마을에 있습니다. 초록빛으로 둘러싸인 평화로운 곳에 위치해 학생들이 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입니다. 다만 쿠스코 시내에서 출퇴근하기에 조금 불편해요. 출퇴근을 위해서는 콜렉티보(목적지가 같은 방향인 승객을 모아 태우고 가는 택시)를 타야 하는데, 퇴근할 때는 학교 앞 도로변에서 콜렉티보를 잡아 세워 타야 합니다. 마치 히치하이킹하듯이 말이죠. 가끔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이미 자리가 차서 짐칸밖에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짐칸에 올라타서 뒤돌아앉아 30분 동안 꼬불꼬불 길을 덜컹덜컹 달리며 집에 도착하면 멀미 때문에 고역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그나마 적응했다고 짐칸에 앉아 주변 풍경도 감상하고 때로는 책도 읽는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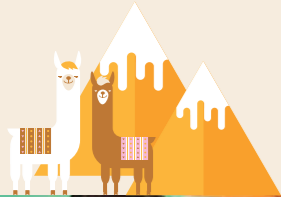
쿠스코에서 가장 크게 신고식을 치른 건 음식입니다. 점심시간에 학교 선생님들과 옆마을 식당으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페루 음식이 의외로 입에 잘 맞네' 하며 열심히 먹었는데 다음 날부터 몸살 기운에 배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병원에 가니 박테리아에 감염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번 앓고 나니 현지 음식이 눈에 잘 안 들어오고 한식이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그 길로 배추를 구해 김치를 담갔죠. 한국에서는 요리에 관심조차 없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건 다 만들어 먹고 있으니, 환경이 사람을 만드는 것 맞죠?





나에게는 너무 버거운 춤 문화

남미 하면 보통 '열정적'이라는 수식어를 쓰죠. 쿠스코 사람들은 흥이 정말 많습니다. 춤을 빼고는 일상을 설명할 수 없을 정도랄까요. 행사마다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함께 춤을 춥니다. 이들에게 춤이란 잘 추고 못 추고 구분 없이 모두가 같은 순간을 공유하고 즐기는 방법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춤 문화가 참 낯설고 민망해 구경만 했어요. 물론 지금은 아주 자연스럽게 리듬에 몸을 맡기고 있습니다. 학생의 날에는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해 춤 공연을 했는데, 무려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친한 수학 선생님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저녁 7시에 시작한다고 해서 정확히 시간에 맞춰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손님이라구요. 9시가 되자 슬슬 다른 분들이 도착했고, 그들은 오자마자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일정인 줄 알았으니까요. 저도 어울려 춤을 추다가 결국 졸음이 쏟아져 양해를 구하고 밤 12시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을 경험 삼아 그다음에 초대를 받았을 때는 일부러 미리 잠도 좀 자두고 배도 좀 채워서 8시 30분에 맞춰 갔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새벽 2시까지 춤을 추고 올 수 있었답니다.



채송이(서울 휘경중 교사)

'남미에서 수학 가르치기'라는 오랜 꿈을 실현하는 중이다. 학생들과 함께하는 수학 수업은 한국에서나 페루에서나 언제나 즐겁다.



"양봉하세요, 선생님"

교정을 걷다 보면 "양봉하세요, 선생님" 하며 인사하는 학생들을 마주칩니다. 남미에 한류 열풍이 불면서 한국에 관심을 갖는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아이돌 춤도 따라 춥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특별 수업을 개설해 일주일에 2시간씩 가르치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 이제 학교 학생 전부가 인사 정도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나요?

이런 학생들과 함께하는 행사는 모두 즐겁습니다. 특히 지난 월드컵 기간에 학교에서 다 함께 응원을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페루가 36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진출해 열기가 엄청났거든요. 저도 페루 응원 티를 사서 입고 목이 터져라 응원했습니다. 헬러윈데이에는 한국의 처녀귀신 분장을 하고 행사를 즐겼습니다. 나무 뒤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학생들이 지나갈 때 썩 쳐다봐주니 다들 놀라서 도망가더라고요.

나는 외롭지 않아요

9월 30일은 제 생일입니다. 미리 사둔 미역을 불려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자축했습니다. 괜히 마음이 쓸쓸하더라고요. 다음 날, 1교시 5학년 수업에 들어갔는데 어찌 알았는지 학생들이 모두 일어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그러고는 아이들이 한 명 한 명씩 나와 "선생님, 생일 축하해요"라며 꼭 안아주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점심시간 이후 쉬는 시간에는 동료 선생님들도 깜짝 파티를 준비해주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를 무려 한국어로 불러주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벤트에 감동받아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지요. 선생님들은 항상 제가 외롭지 않은지, 한국이 그리워하는 않은지 물어봐줍니다. 혹여나 각종 학교 행사에서 소외될까 봐 매번 "같이 가자, 송!" 하고 챙겨준답니다.

저 이곳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있는 것 맞죠? 이럴 때마다 나의 소임인 수업에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합니다. 내가 받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파견 생활이 끝날 때까지 이 마음 변치 말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트렌드의 트렌드를 엿본다

- 2019년을 바라보는 시선

겨울의 들판을 지나며 새 땅을 찾는 사람들은 작은 물의 흔적에도 발길을 멈춘다. “봄이 되면 이 물길은 어디로 흘러갈까? 그곳에 집을 짓고 땅을 일궈야 할 텐데...” ‘트렌드’는 스칸디나비아 농부들이 물길을 일컫는 ‘trendr’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새해를 앞둔 사람들은 저마다 세상의 물길을 찾는다. 그레야 남들보다 먼저 좋은 터를 잡고, 물건을 팔고, 직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대학내일20대연구소 등이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하고 IT, 경제, 패션 등 전문 분야에서도 각종 예측을 쏟아낸다. 과연 이들이 바라보는 2019년의 트렌드는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삶을 어디로 이끌까?

글 이명석(문화비평가)

여기저기에서 쏟아지는 트렌드 예측의 중심은 소비문화다. 만약 타임머신이 있어 당신이 2019년 12월 31일로 갔다 올 수 있다면 무얼 해야 할까? 나라면 얼른 뉴스 사이트를 검색해 2019년 여러 분야의 베스트셀러를 돌아볼 것이다. 그해에 어떤 상품이 유행했는지, 어떤 신기술 제품이 세상을 뒤흔들었는지, 어떤 기업의 주식이 오르거나 내렸는지 알고 돌아오려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누구보다 수월하게 1년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18년의 핵심 트렌드 유행어였던 소확행, 워라벨, 가심비 역시 라이프스타일을 중심으로 한 소비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2019년 소비 트렌드 용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세포마켓’이 있다. 최근 몇 년간 1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소규모 맞춤형 라이

프스타일은 거의 안착되었다. 2019년에는 소비자뿐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이런 현상이 또렷해질 것 같다. 세포마켓은 자신만의 유통 채널을 가진 개인을 뜻하는데, 세포처럼 작지만 증식하는 특성이 있다.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은 물론 다양한 SNS에서도 1인 사업자가 부쩍 늘고 있는데, 누구나 직접 상품과 능력을 파는 ‘1인 1마켓’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팔로인’, ‘가취관’ 등의 트렌드도 이와 상통한다. 과거에는 전국 단위의 유명인이나 스타가 소비 유행을 주도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데 ‘팔로인(Follow+人)’은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을 지닌 일반인, 자신의 취향과 경험을 기반으로 진정성 있는 정보를 주는 사람을 팔로하는 현상을 말한다. SNS를 통해 자신이 현실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롤모델을 찾아 그 사람이 사고

즐기는 것을 따라 하는 것이다. ‘가취관’은 학연이나 지연이 아니라 가볍게 취향을 중심으로 모인다는 뜻이다. 취미가 비슷한 이들과 어울려 윈데이 클래스를 즐기고, 기간제 취향 살롱 등을 통해 사교 활동을 한다.

트렌드 전반의 변화를 ‘세대’로 이해하는 방법도 꾸준히 인기를 모으고 있다. ‘밀레니얼’은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데, X세대 다음이라 Y세대라고 불린다. 이들은 인터넷, 모바일 등의 IT 기술을 활용하며 자란 만큼 신기술에 대한 감수성이 뛰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상명대학교 소비자분석연구소장 이준영 교수는 밀레니얼을 ‘미미미(Me Me Me) 시대’라고 말하며 “타인과 관계 맺기보다는 자신만의 취향을 추구하고, 동시에 진정성 있는 기업과 상품에 기꺼이 지출한다”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트렌드의 중심으로 등장한 것도 이미 여러 해가 지났는데, 2019년에는 여기에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밀레니얼 가족’은 이들 세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로봇 청소기, 식기세척기, 빨래 건조기 등을 이용해 시간을 효과적으로 절약하고, 모바일 배달 앱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가족 모델을 그린다.

‘Z세대’는 밀레니얼 이후 세대다. 이들은 유년 시절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자라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생산자라고 한다. 한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 역시 트렌드의 핵심이 되는데, Z세대를 중심으로 2019년을 뒤흔들 기술 영역은 ‘유튜브’다. 물론 유튜브를 이용한 동영상 공유, 1인 방송 등의 유행은 이미 여러 해 동안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유튜브가 단순 동영상 서비스를 넘어 가장 먼저 접속하고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포털과 검색 엔진으로의 위치까지 격상하고 있다. 이는 앞서 말한 세포마켓과도 연결된다. ‘언박싱(Unboxing)’은 특정 상품을 유튜브가 직접 구매한 뒤에 포장을 뜯는 장면을 동영상 콘텐츠로 중계하는 것을 말하는데, 시청자는 이를 통해 생생하게 제품의 구매 체험을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인플루언서 광고’가 마케팅 영역에서 주요한 트렌드가 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트렌디한 기술력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QR코드, 간편결제, 안면인식 등의

기술로 오프라인 매장 이용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력인데, 2018년 소비 트렌드 용어인 ‘언택트(Un+contact)’와도 통한다. 언택트(Untact)는 타인과의 접촉을 꺼리는 소비자가 혼자서 조용히 쇼핑을 하고 돌아가는 형태, 그리고 이를 도와주는 무인 서비스를 말한다. 그런데 기업은 이를 통해 오프라인 매장 내 소비자 행동을 데이터화해 고객을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개인은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해 자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 셈이다.

대중문화와 관련한 트렌드 역시 빠지지 않는다. 유행에 가장 민감하고 여러 영역에 대한 전파력이 크기 때문이다. 2019년 주목할 문화 트렌드는 ‘뉴트로’다. 레트로(Retro)는 식상하다. 그런데 이제 이 레트로를 완전히 뉴(New)로 인식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를 통해 1970~1980년대 큰 인기를 얻은 그룹 퀸의 음악에 새롭게 입문하는 젊은 세대가 등장하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는 문화 소비의 주축이 새로운 세대로 넘어가지 않고 기성세대가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2019년 트렌드 예측은 의외로 지난해 강력한 사회현상으로 등장한 페미니즘, 미투 열풍 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젠더 뉴트리얼’ 정도가 변화 양상을 건드릴 뿐이다. 되돌아보면 탄핵, 통일 등 정치적 이슈도 배제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트렌드 리포트가 우리 사회의 예민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들은 ‘사람들이 뭘 사고 입고 먹을까’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다. 한국 사회는 사회·정치적 요동이 워낙 크고, 세상의 물길도 그와 관련해 격동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곤란하다.





행복을 연주하고 정을 나누는

인천광역시 초등 관리직 밴드 '더블루'

현장을 떠나 관리직이 된다는 것은 많은 책임과 사명감을 동반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일상에까지 무거운 추를 드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저 음악이 좋아서 모인 11명의 교장 교감은 각자의 손에 기타, 베이스, 색소폰, 마이크, 드럼 스틱, 신시사이저, 플루트를 든 채 “음악이 있어서 더 즐거운 우리 인생!”을 외치는 사람들이다.

글 이경희 사진 한상무



전국 최초의 인천광역시 초등 관리직 밴드

늦은 저녁,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한 부흥초 지하에서 신나는 멜로디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이 되면 한 치의 오차 없이 ‘더블루(The Blue)’ 멤버가 모인다. 더블루는 인천 지역 초등학교 교장 교감이 모여 결성한 밴드로, 언제나 마음은 청춘이라는 의미다.

“더블루는 2016년도에 첫발을 내딛어 현재 3년째 활동하고 있어요. 11명의 멤버 중 2명이 교감, 나머지는 전부 교장 직함을 가진, 전국 최초의 초등 관리직 밴드입니다.”

처음 출발할 때는 중등 관리직도 있었으나 개개인의 사정으로 변화를 겪으며 올해부터 오롯이 초등 관리직 밴드가 됐다고 말하며 박경덕 회장(인천연송초 교장)이 활짝 웃는다.

더블루는 처음 출범할 때부터 녹록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바쁘고 신경 쓸 일이 많은 관리직 교직원에게 함께 모여 밴드를 하자고 권하자 “전 실력이 안돼서” “시간이 없어서” 등 많은 사양과 망설임이 쏟아져 나온 탓이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일단 모여서 한번 놀아보자’라는 마음으로 회원을 영입했다. 박경덕 회장처럼 음악을 전공하거나, 어린 시절 교회에서 반주를 맡았거나, 얼마 전부터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하는 등 다양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 알음알음 모였다.



앞으로도 멤버 간 돈독한 우애를 쌓는 것은 물론 좀 더 많은 시간을 봉사 활동에 할애하고 싶다는 더블루. 삶과 음악을 관통하는 깊고 짙은 푸름이 이들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더블루는 바로 그 아름다운 증거와도 같은 존재다.

봉사와 가족에 그리고 음악

더블루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성실한 밴드라는 것이다. 일 단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8시까지 일정을 한 번도 거 르지 않고 모여 연습하는데,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력을 갈고 닦는다. 록, 대중가요, 트로트, 팝송, 중국 노래까지 레퍼토리도 다양하다. 예습 복습은 물론 각자 맡은 파트에 최선을 다한다. 2008년, 소프라노 색소폰을 시작해 창단 멤버로 더블루에 들 어온 박찬구 회원(인천부흥초 교장)은 창단 이래 단 한 차례도 연습 시간에 빠진 적 없는 열혈 멤버다. 물론 연습실이 박찬구 회원이 출근하는 부흥초에 있는 덕분이기도 하지만 음악에 대 한 열정이 뜨겁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처음 색소폰을 배울 때는 혼자였습니다. 연습도, 봉사 연주도 혼자 했죠. 누군가와 소리를 맞춰본 적이 없는 채 독불장군처 럼 연주했어요. 밴드에 들어오니까 연습하지 않으면 다른 멤 버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니까 성실히 임할 수밖에요.(웃음)” 그는 더블루 입단 후 가장 큰 변화로 악보 보는 눈을 기른 것을 꼽았다. 귀로 음악을 먼저 익혀 악보를 볼 줄 몰랐다는 것. 더블 루에 들어와 함께 연습한 뒤 이제는 달라졌다.

인천교육연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페스티벌 식전 행사, 지인 과 친지를 모신 연례 정기 공연 등 3년간 더블루가 만들어온 족 적은 개개인의 역할을 넘어 큼직했다. 여기에 연주를 통한 봉 사 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가장 더웠던 날과 가장 추웠던 날에 ‘사랑해 빨간밤차’ 봉사 활 동에 참여한 것은 우리 밴드 회원 모두에게 소중한 기억입니 다. 부평역과 주안역 앞 급식소에 모인 어르신들을 위해 신나 게 음악을 연주하고 연주를 마친 뒤에는 서둘러 앞치마를 매고 급식 봉사를 했거든요.”

‘머나먼 고향’ ‘섬마을 선생님’ 등 애창곡 이 나올 때마다 박수치며 어깨춤을 추 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더블루에게 음악 하는 보람과 봉사하는 행복을 알려 주었다.



우리 청춘은 여전히 현재진행형

박경덕 회장에게 더블루를 이끌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자 “밴드 활동을 통한 즐거움과 행복”이 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우리가 갑자기 프로로 전향한다거나 가수를 할 건 아니잖아 요. 무엇보다 우리가 즐기는 게 가장 우선이에요. 그 과정을 통 해 삶의 여유를 찾고 싶어요. 지금 회원들 나이도 40대부터 50 대까지 다양한데 음악으로 나이와 성별을 초월해 하나로 뭉치 는 기쁨을 맛보고 있어요. 끈끈한 가족애와 인간관계는 그 무 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자 회원(인천만수초 교장) 역시 뛰어난 재능이 아닌 악기 를 좋아하고 음악을 진정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라 며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사회적 명함을 내려놓고 작은 연습실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모두는 삶의 활력을 되찾아요. 화요일은 무조건 일정을 비워놓 고 정말 큰일이 아닌 답에야 오롯이 우리만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모두의 진심이 녹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요즘 더블루는 2월에 있을 공연을 위해 맹연습 중이다.

“2월에 인천광역시 초등 교장 퇴임 송별연 행사가 열립니다. 그 곳에 더블루가 초대를 받아 공연합니다. 우리 멤버 중에도 퇴 직자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남듭니다. 우리 더블루는 퇴 직 후에도 변함없이 함께 활동하는 밴드로 자리 잡기를 바라 는 마음에서요.”

앞으로도 멤버 간 돈독한 우애를 쌓는 것은 물론 좀 더 많은 시 간을 봉사 활동에 할애하고 싶다는 더블루.

삶과 음악을 관통하는 깊고 짙은 푸름이 이들의 나이는 숫자 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더블루는 바로 그 아름다운 증거와도 같은 존재였다.



밴드 동아리 '더블루'와 함께해요!



악기 연주를 빼어나게 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랜 연주 경력이 필요하지도 않 습니다. 타인을 위한 배려와 봉사 정신, 성실함을 갖춘다면, 여기에 인천광역시 관 내 초등학교 관리직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의 많은 연 락 바랍니다.

☎ 박경덕 회장 010-9066-9887

지구촌의 새해맞이

1월 1일, 세계는 어떤 방식으로 안녕할까. 세계 곳곳 새로운 태양이 떠올랐다. 태양은 하나지만 새해를 맞는 방법은 모두 제각각이다. 각기 다른 새해를 만나본다. 글 진미현 일러스트 청운



한국

“새해 첫날, 1년을 준비하는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가짐을 갖고자 흰 떡국을 끓여 먹는다.” 조선 사학자 최남선의 <조선상식문답>에서 알 수 있듯 가래떡은 예로부터 순수와 장수의 의미를 담아 하얗고 길게 뽑았다. 묵은해가 가고 새롭게 시작하는 날에는 엄숙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토속신앙에서 시작되었는데, 긴 가래떡에는 장수와 더불어 재산도 늘어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가래떡을 둥글게 썰어 떡국을 끓이는 이유는 옛 화폐인 엽전의 모양을 닮아 새해부터는 재물이 풍족하길 바라는 조상들의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국

중국은 새해를 맞아 ‘넨가오’라는 떡과 덩섬을 먹는다. 둘 다 재물이 모인다는 의미를 지녔다. 넨가오는 중국의 전통 쌀떡으로, 새해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라는 뜻인 ‘넨가오(年高)’와 발음이 비슷한 것에서 유래했다. 중국 각 지방마다 재료와 만드는 방법이 달라 다양한 종류의 넨가오가 있지만, 대부분 쌀로 만든 떡에 팥을 넣어 찜통에 찐 뒤 식혀 기름에 다시 튀겨 만든다. 넨가오를 찜통에 찌 때 소란을 피우거나 불길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가 있다. 쌀떡을 씹을 때 입안에 들려붙는 것은 가족의 결속과 복이 떡처럼 둘러붙는 것을, 둥근 모양은 화합을, 팥소의 달콤함은 인생의 단맛을 뜻한다. 단순한 음식이 아닌 사랑과 덕담의 의미로 이 떡을 함께 나눠 먹는다.



프랑스

프랑스는 집 안의 술이 다음 해까지 남아 있으면 액운이 든다고 생각해 새해 전날인 12월 31일에 가족이 모두 모여 남은 술을 다 마시는 풍습이 있다. 새해에 즐겨 먹는 음식과 놀이로는 왕의 과자라 불리는 ‘갈레트 데 루아(La galette des rois)’를 나눠 먹으며 건강한 한 해를 기원한다. 전통적으로 파이를 구울 때 안에 조그만 도자기 인형을 넣고 함께 굽는데, 이 도자기 인형이 잠드공처럼 작다고 해서 페브라고 부른다. 파이 조각에서 페브가 나온 사람은 그날 하루 왕 대접을 받는다. 이는 루이 14세 때부터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으며, 1년 내내 행운이 깃든다는 속설 때문에 각 지역의 빵집에서는 1월 내내 특색 있는 갈레트 데 루아를 판매한다.



스코틀랜드

12월 31일 저녁, 스코틀랜드 각 가정의 벽난로는 깨끗해야 한다. 불을 끈 후 재를 말끔히 버려야 새해에 행운을 가져올 새 불을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정이 다가오면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묵은해의 마지막 종소리를 듣는데, 마지막 종이 울리면 서로를 껴안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축배를 든다. 이때 현관문을 활짝 열어 사악한 기운이 도망가게 한다. 과거에는 주전자와 프라이팬을 두르려 사악한 기운을 쫓아 내기도 했다. 스코틀랜드인은 특히 새해 첫날 처음 방문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행운이 올 수도, 불운이 올 수도 있다고 믿는다. 까만 머리 사람은 행운을 가져온다고 한다. 또 다른 집에 방문할 때는 꼭 선물을 준비해야 하는데, 석탄이나 블랙 번, 위스키를 들고 가야 행운이 온다고 한다.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새해를 맞이하는 에든버러 호그마니 축제도 열린다. 호그마니는 새해라는 뜻이다. 이 축제에서는 햇불을 들고 행군을 한다.



스페인

스페인을 비롯한 많은 스페인어권 나라의 새해는 입속 가득 포도 향을 풍기며 시작한다. 12월 31일 자정에 포도 열두 알을 먹으면 행복과 번영이 가득한 열두 달이 온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자정에 교회 종이 울릴 때마다 한 알씩 먹어야 한다. 한 번 종이 칠 때마다 한 알씩, 총 열두 알을 먹는 것. 원래는 새해를 알리는 종이 칠 때마다 한 번에 포도 한 송이씩을 먹는 풍습이 있었다.



베네치아

물이 차고 흐르는 삶에서

어머니의 눈앞에 수중 도시가 놓였다. 아버지를 향해 이국(異國)의
벤틀공은 수줍게 인사한다. 가족의 첫 번째 해외여행,
그 가운데 베네치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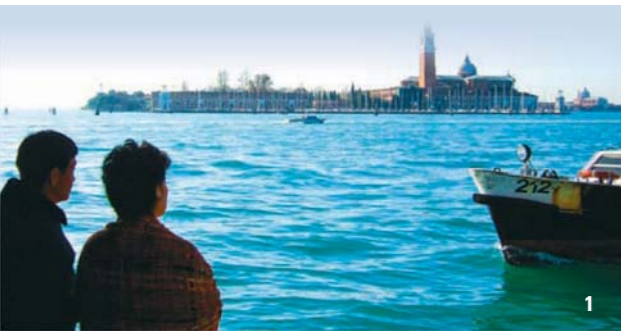
글 양정훈(여행작가) 사진 양정훈 외



로마에서 출발한 기차는 새벽을 달려 베네치아(Venezia)에 닿았다. 가족이 함께 한국을 떠나온 첫 번째 여행이었다. 부모님께는 인생 최초의 해외여행이기도 했다. 여정이 중반을 넘어서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엿보였다. 그러나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는 생경한 수중 도시의 풍경 앞에 다시 생기가 돈다.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베네치아를 둘러볼 예정이었으나, 어머니는 설렘에 애타는 아이처럼 얼른 골목골목을 구경하자고 보챈다. 물이 사방천지를 감싸며 흐르고 있었다.

물 위에 세운 기적의 도시

영어로는 베니스(Venice)라고 부르는 이곳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도시 중 하나다. 본섬 시가지에는 두칼레 궁전(Palazzo Ducale), 산마르코 대성당(Basilica di San Marco) 등 예술사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 과거의 영예를 재현하며, 집집마다 총천연색으로 벽을 칠한 무지개 섬 부



라노(Burano)나 유리 공예의 심장 무라노(Murano) 섬 역시 수많은 여행자를 불러 모은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베네치아를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는 표현은 ‘물의 도시’다. 아드리아 바다를 면한 거대한 석호 안에 자리 잡은 120여 개의 섬을 400여 개의 다리로 이어 지은 기묘한 도시다. 실제로 물이 도시의 9할을 채운 모습은 마치 전설 속 어딘가에 도착한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한다. 섬과 섬 사이의 물길이 도로이자 길이며, 섬들의 지형을 따라 독특한 모양의 시가지가 형성돼 있다. 건물은 땅이 아닌 석호의 물속에 직접 기둥을 박고 서 있다. 입구는 운하로 바로 이어져 집집마다 문 앞에 배를 정박하는 낯선 광경이 펼쳐지기도 한다. 연신 혀를 내두르며 아버지는 “어찌 저리 살림을 꾸렸느냐” “이거 참 보고 있어도 희한한 풍경이다” 말을 더했다. 한 해에 약 1600만 명 규모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이유 역시 거대한 물길과 인간의 역사가 이룬 신비로운 정경을 만나기 위해서다.



1. 부모님께 물의도시 베네치아는 놀랍고 눈부신 곳이다.
2. 산마르코 광장 근처 쇼핑 거리에는 가면을 파는 다양한 숍이 즐비하다.
3. 12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베네치아. 길마다 운하에 닿는다.
4. 베네치아에서는 수상 버스, 수상 택시가 가장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다.
5. 산마르코 광장에는 수많은 비둘기가 산다.



여행은 열심과 성실로 끝까지 차오른 어머니 삶에 잠시 틈은 물길이 되었을까. 새 물길을 타고 몇 바가지 아버지의 호수가 다시 흘렀을까. 차고 기울고 다시 차는 달처럼, 물은 씬 없이 떠나고, 흐르고, 도착하고 있었다.

광장으로 이어진 길

대충 짐을 던져두고 부모님과 함께 길을 나섰다. 두 분과 나란히 걸을 때 몇 번쯤 아버지와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싶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성인이 된 후 그런 일은 창피한 행동이 되어버렸다. 이상하게도 한국을 떠나면 다 큰 남자가 나이 든 부모의 손을 잡는 게 덜 부끄러운 일이 된다. 베네치아 운하에 기대 걷는 동안 잠깐잠깐 아버지의 어깨를 만지고, 어머니의 손등을 쓰다듬는다. 좁은 수로 사이 모퉁이를 지나가는 길은 이내 거대한 광장을 데려다놓았다. 산마르코 광장이었다. 베네치아 본섬의 모든 길은 산마르코 광장에서 시작하고 끝난다. 대운하를 향해 한 면이 완전히 열려 있는 광장을 중심에 두고, 마치 중정(中庭)을 둘러싼 것처럼 ‘ㄷ’ 자 모양의 회랑이 나머지 세 면을 채운다. 회랑에는 기념품점, 서점, 레스토랑, 아틀리에 등이 입점해 있는데 그중 가장 오래된 가게는 무려 300여 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카페다. 한때 베네치아는 나폴레옹에게 정복당한 적이 있다. 당시 나폴레옹이 바로 이 광장을 두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라 칭송했다고 전해진다.

대성당에 노을이 지는 동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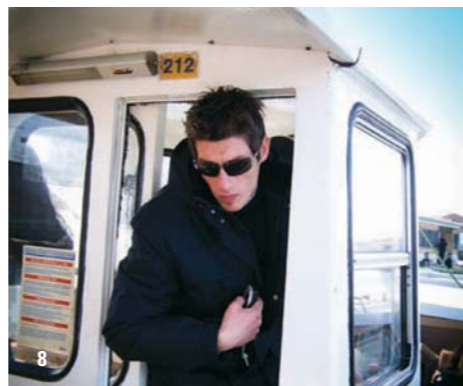
산마르코 광장이 조성된 건 베네치아의 수호자인 마르코 성인을 기리며 산마르코 대성당이 건립되면서부터다. 베네치아 상인 2명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마르코 성인의 유골을 옮겨와

안치한 것이 기원전 828년. 그 위에 동양의 비잔틴 양식과 서양의 로마네스크 양식을 섞어 전에 없던 건축양식의 성당을 지어 올리며 이른바 ‘베네치아 양식’이 탄생했다. 베네치아는 석호 위에 세워진 탓에 지반이 약해 높은 건물을 올릴 수 없다. 산마르코 대성당의 종탑은 베네치아를 통틀어 가장 높은 건물로 정상에 오르면 물의 도시 전경을 막힘없이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오후가 훌쩍 지나며 대성당이 황금빛 노을에 잠기는 풍경은 쉽게 가지지 않는 여운을 남긴다. 대운하 위로 반짝이는 물비늘이 성당 입구의 모자이크 장식에 겹친다. 성당 앞에는 노을이 다질 때까지 베네치아의 모든 새를 불러 모으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이후에도 우리가 광장을 지날 때마다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새가 너무 많으며 무서워하다가 차츰 익숙해져 그녀와 눈인사를 나누고, 곧이어 그녀를 따라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기도 했다. 부모님과 첫 여행에서 내가 발견한 가장 새로운 풍경은 어찌 보면 낯선 도시, 낯선 사람을 만나고 느끼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세상을 감각하는 그 눈에는 놀이동산에 처음 방문한 아이가 스쳐 지나기도 하고, 때론 내가 아무렇지 않게 넘긴 장면들 앞에 그렇그렇 눈물을 담기도 했다.





6



- 6. 무지개 섬 부라노는
충천연색으로 치장한 섬이다.
- 7. 베네치아는 정말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 있다.
- 8. 수상 버스의 승무원.
- 9. 빨래를 널어둔 풍경에서
베네치아 사람들의 삶이
스쳐 간다.



9

석호 위의 삶

처음 베네치아 도착한 사람은 누구라도 길을 헤맬 수밖에 없다. 어떤 문인은 베네치아에서 길 찾기는 마치 퍼즐 맞추기 같다고 표현했다. 골목과 골목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석호와 운하 때문에 중간중간 길이 뚝 끊겨버리는 탓이다. 앞서 말했듯, 베네치아는 거대한 석호 바닥 모래 퇴적물에 독을 박고 기둥을 세워 지은 도시다. 그 때문에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불안정한 지반 탓에 건물이 기울기도 하고, 여름이면 홍수가 닥칠 때도 많다. 올해 여름만 해도 10년 만에 최악의 홍수로 도심의 4분의 3이 침수되었다. 여행자의 눈에야 신비로울 따름이지만 이곳에 삶을 차린 사람들에게는 고달픈 생활이 아닐 수 없을 텐데, 대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형에 도시를 세워야만 했을까. 사실 베네치아의 기원에는 난민의 슬픈 역사가 뿌리내리고 있다. 우리에게 낯설지만 원래 이탈리아 북부 지역부터 스위스 알프스에 이르기까지 롬바르디아(Lombardia)라는 이름의 왕국이 자리 잡고 있었다. 567년 왕국이 외세에 침략을 당하는데, 이때 롬바르디아 사람들의 피난 행렬이 시작됐다. 하지만 안전한 곳을 찾아 도망쳐온 난민들에게 허락된 땅은 없었다. 그들은 베네치아만(灣)까지 닿았음에도 정착할 땅을 찾지 못했고, 결국 석호 위에 말뚝을 박아 나무판자를 이어 붙인 뒤 인공 대지를 만들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생겨난 마을이 바로 최초의 베네치아다.

베네치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베네치아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육로를 이용한 대중교통이 거의 없고, 정책적으로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신 수상 버스와 수상 택시, 곤돌라가 여행자와 시민의 주요 교통수단이지요.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못했지만, 알록달록한 무지개 섬 부라노나 유리 공예의 섬 무라노는 본섬과는 또 다른 정경을 보여줍니다. 산마르코 광장의 선착장에서 한 시간 정도면 두 섬에 닿을 수 있으니 꼭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베네치아는 900여 년 역사를 지닌 가면 축제로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가면 축제가 열리는 베네치아 카니발은(Carnevale di Venezia)은 이탈리아 최대 행사로 매년 2~3월에 개최되죠. 2019년에는 2월 16일부터 열흘간 열릴 예정이니, 베네치아 여행 시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축제 기간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차고 흐르는 물의 도시에서

누구나 베네치아에 오면 배를 타게 된다. 잔잔한 파도 위에 흔들리며 곤돌리에(곤돌라를 운전하는 뱃사공)의 노랫가락을 따라 흥얼거린다. 뱃길은 카사노바가 즐겨 찾았다는 골목을 스치기도 하고, 죄인들이 한탄하던 ‘탄식의 다리’ 아래를 지나기도 한다. 흔들흔들 파도의 운율과 사공의 노래에 젖고, 물비늘과 노을이 함께 칠한 그림에 빠진다. 아버지의 이마에, 어머니의 귓볼에 찰랑찰랑 물이 차올랐다. 그들에게 이 여행은 무엇이었을까. 어머니는 언젠가 이제 인생이 꼭 고인 물 같다고 내게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그때 어머니의 오래된 손을 잡고 함부로 떠나고 싶었다. 혹시 이 여행은 열심과 성실로 끝까지 차오른 어머니 삶에 잠시 킁 물길이었을까. 새 물길을 타고 몇 바가지 아버지의 호수가 다시 흘렀을까. 도시 위로 밤이 익어 달빛이 빛난다. 차고 기울고 다시 차는 달처럼, 물은 쉽없이 떠나고, 흐르고, 도착하고 있었다.

‘길 없음’의 시대, 희망의 언어 찾기

2019년 새해가 밝았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여정을 준비할 시간이다. 새해 첫 달, 우리가 이 책을 펼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글 김중면(콘텐츠랩 씨큐브 수석연구원·전 서울신문 수석논설위원)



碩果不食

‘온 세상을 통틀어도 작은 촛불 하나를 무색케 할 만한 어둠은 없다.’ 지나치게 희망적인 생각으로 비칠 수 있지만 새겨들을 만한 금언이다. 긍정적 사고는 때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한다. 유대인이 그렇게 모진 시련을 겪으면서도 굴하지 않고 살아남아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바로 이런 낙관적 마음 자세 덕분이다. 유대 민족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랍비에게 매일 노름으로 밤을 지새우는 자가 있다는 진정이 들어온다. 하지만 랍비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한다. “잘하는 일이군. 그렇게 밤샘을 하면 <탈무드>를 공부하고 하느님을 찬양하는 일도 밤새워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비판의 길은 좁지만 낙관의 길은 넓다는 게 유대인의 사고다.

하루하루 부대끼며 살아가는 궁핍의 시대, 원칙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이 암울한 아프리카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절망이 아니라 희망, 비판이 아니라 낙관의 사고라는 것이다.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펴낸 <담론>은 그런 시대적 요구에 맞는 데가 있다.

저자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했다. 그가 “20년 동안 의지한 희망의 언어”가 석과불식(碩果不食)이다. 저자는 석과불식을 “씨 과실을 먹지 않는다”라는 말로 풀이한다. 저자에 따르면 사람을 키우는 일이야말로 그 사회를 인간적인 사회로 만드는 일이다. 사람은 다른 가치의 하위 개념이 아니다. 사람이 ‘끝’이다. 절망과 역경을 ‘사람’을 키워내는 것으로 극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석과불식의 교훈이다.

이 책에는 교도소 이야기가 적잖이 등장한다. ‘공감의 공동체’로서의 옥방 생활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린다. 저주나 비판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통상의 ‘징역 정서’를 배반하는 고도로 절제된 정신, 그것은 차라리 ‘초낙관주의’라고 부를 만하다.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는 “고통을 통해 힘이 솟구친다. 고통이 있어야 건강이 있다”라고 했다. 헤세도 말하듯 사소한 감기에 걸렸는데 갑자기 폭 쓰러지는 사람은 언제나 ‘건강한’ 사람이다. 그들은 고통받는 법을 배우지 못한 이들이다. 그렇다. 고통은 사람을 유연하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든다. 헤세의 고통관(苦痛觀)에 비춰보면 신영복은 누구보다 삶을 견뎌내는 법을 앞서 터득한 사람이다.

저자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루하루의 깨달음과 공부였습니다”라고 말한다.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한 아무리 멀고 힘든 여정이라 하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自己)의 이유(理由)’를 줄이면 ‘자유(自由)’가 되기 때문입니다”라는 말도 덧붙인다.

이 책은 사물과 현상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보여준다. 하지만 간혹 도식화의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저자는 위선이 미덕으로, 위악이 범죄로 재단되는 것은 강자의 논리라고 말한다. “테러는 파괴와 살인이고 전쟁은 평화와 정의라는 논리가 바로 강자의 위선입니다. 테러가 약자의 전쟁이라면, 전쟁은 강자의 테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현실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모순된 조어가 버젓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위선이고 무엇이 위악인가.

저자는 끝내 가슴에 품은 ‘사상’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 강인한 견인주의자다. 놀라운 의지의 힘으로 ‘고통의 사용법’을 보여줬다.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평범한 진실을 일깨워준다는 데 이 책의 미덕이 있다. 다시 밝아온 새해, 희망은 시작되었다.

도 서 정 보



<담론>
신영복 저(둘베개)
신영복 선생의 마지막 강의이자 사람과 삶에 관한 인문학적 담론을 담은 책. 절망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사람을 키우는 선생의 마음이 보인다. 새해, <담론>의 첫 장을 넘겨보자. 첫 장이 아니어도 좋다. 어느 부분을 펼쳐 읽어도 이해가 되며 마음의 울림을 줄 것이다.

추 천 영 화



와일드(Wild, 2014)
감독 장 마크 발레 주연 리즈 위더스푼
아무렇게나 흘러보낸 시간은 얼마나 야성적인가. 4285km, 94일 긴 여정 속 삶의 본질을 마주하다 슬픔과 상처로 가득한 자신을 되돌려놓기 위해 수천 킬로미터를 걷는 주인공. 고난과 역경을 정면 돌파하고 스스로를 치유하는 모습은 우리 인생을 반추하게 만든다.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공간의 변화, 꿈과 상상의 즐거움으로 경북 구미봉곡초

“우리는 건물을 만들지만, 그 건물은 다시 우리를 만든다.” 윈스턴 처칠의 말이다. 우리를 만드는 것이 곧 우리 자신임을 자각한다면, 아이들을 위한 공간 변화는 적극 시도해야 한다.

아이들은 물론 교사에게도 꿈꿀 공간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글 이아도 사진 황원



우주에서 자유로이 즐기는 아이들

따르릉. 쉬는 시간 종소리가 울리자 아이들이 교실에서 쏟아져 나왔다. 특히 4층 복도와 그 옆 공간은 아이들로 북적거렸다. 오전 내내 햇빛을 온전히 받아내는 별집 같은 공간. 벽의 스테인드글라스를 통해 들어오는 동그란 빛으로 복도는 온통 우주로 변한다. 2인용 작은 테이블은 시골 다락방 느낌을 물씬 풍기고, 그 옆 널찍한 타원형 공간 역시 또 다른 우주로 제 몫을 다한다. 짙은 남색 벽과 천장에는 별이 총총 떠 있다. 원목 계단으로 층층이 꾸민 이곳에서 아이들은 마치 우주를 유영하듯 오르내리며 놀고 있다. 물론 맨발로 자유로이. 구미봉곡초는 벤처 기부 펀드 ‘씨프로그래(C Program)’와 함께 2016년 11월부터 ‘배움의 공간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중심에는 공간에 관심을 보인 김인철 구미봉곡초 교사가 있었다. “학교라는 공간을 둘러보면 교실 말고도 쓸 수 있는 공간이 꽤 있어요. 복도를 비롯해 교실 밖에서 아이들이 공부하거나 다양하게 활용하는 공간을 찾고 싶었죠.” 프로젝트 수업을 하다 공간에 관심을 갖게 된 김인철 교사는 모둠별로 수업과 회의를 해야 하는데, 교실은 아이들이 무리지어 활동하기에 협소해 보였다. 공간의 확장과 변화는 여기에서 시작됐다. 이를 위해 5학년 아이 4명이 함께 참여했다.

아이들이 생각해낸 공간

“프로젝트 자체가 학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나오는 게 목적이었어요. 선발된 4명의 아이는 ‘우리끼리 있을 공간’ ‘비밀 장소’ ‘다락방’ 등 다양한 바람을 쏟아냈고, 이를 설계에 반영했죠.” 새로운 공간은 학교 전체의 변화로 이어졌다. 아이들은 이곳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방과 후에는 옆드려 숙제를 하거나, 담요를 덮고 뒹굴며 친구를 기다렸다. 아이들의 공간 활용도는 수치로도 확인됐다. 카운팅 카메라로 확인한 결과, 공간의 변화로 찾아오는 아이들의 수는 4배, 머무는 시간은 5배가 늘었다. “교육적 의도로 전문가와 교육자가 함께 창의적 공간에 대해 고민한다면 아이들은 물론 교사 또한 긍정적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김인철 교사는 확신했다. 분명한 것은 새로운 ‘배움의 공간’ 덕분에 구미봉곡초 아이들의 얼굴은 환한 웃음으로 가득하다는 것. 학교가 그릇이라면 아이들은 물이다. 학교가 네모나면 아이들은 네모나게 담기고, 둥글면 둥글게 담긴다. 구미봉곡초 아이들은 그렇게 한 뼘 더 행복을 품었다.



서민 지갑 배려한 2019년 세법 개정안

12월 8일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비해 내용은 수정됐지만, 일부는 그대로 통과됐다. 주요 방향은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소득세 완화다. 특히 지갑이 얇은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배려하는 정책이 눈에 띈다. 청년과 직장인의 공제 혜택은 늘리고 상품의 이자 수익에 관해서도 세율을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비교적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다양한 부분에서 세제 혜택을 주는 쪽으로 개정안의 골자를 잡은 것이다.

글 박성준(아주경제 기자)



소득을 지키자... 소득세·부동산세 완화 움직임

이번 2019년 세법개정안은 총 21개 영역에서 방대하게 추진됐다. 우선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소득을 지켜내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최근 부동산 투기와 다양한 투자 열풍이 자본시장의 규율을 해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소득과 재산에는 과도한 세율 부담과 정부 개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이 정리됐다.

부동산에 관심이 뜨거워진 만큼 세법개정안에도 부동산을 다룬 영역이 많았다. 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소득세 부분에서 일부 개정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종부세법은 9·13부동산대책 내용을 대부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되고, 이 구간에는 현행 0.2%보다 0.5%p 오른 0.7%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위해 세율 적용 구간을 세분화했다. 집 세 채를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 기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도 0.1~0.5%p 추가 과세한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보유세 부담 상한은 정부에서 제시한 300%보다 낮은 200%로 확정했다. 정부는 서울 등 43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 총액을 전년도 세액의 3배까지 부과하도록 추진했지만 과도한 세 부담이라는 지적에 상한을 낮추도록 결론 냈다. 또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확대된다. 이전에는 15년 이상 보유 시 40%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이번에 50%로 상향 조정했다.

소득세법 부분에서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기존 등록자에게 70%, 미등록자에게 50%를 추진했으나 수정안에서 등록자 과세를 60%로 결정, 10%p 낮췄다.

또 개인 간 거래 투자인 P2P 투자에 관해서도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인 14%로 인하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1년간 시행된다.

직장인 청년층 유리지갑 두툼히

젊은 직장인과 봉급생활자를 위한 세법개정안도 많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더 연장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직장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중요도가 높은 편이다.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준다. 사용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공제해준다. 또 직장인의 여가와 복지 향상을 위해 연 7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 금액에 대해 30%를 공제해주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해까지였던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도 2021년까지로 늘렸다.

만능 통장으로 불리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 대상도 2019년부터 확대된다. ISA는 5년(청년·서민형은 3년) 동안 가입할 경우 만기 때 받는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는 계좌다. ISA 가입 대상은 직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와 농어민으로 한정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그간 이 부분은 꾸준히 논란거리였다. 이에 경력 단절자를 배려하기 위해 직전 3개년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수정했다.

미래를 짚어질 청년들의 적금과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을 이뤄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을 대상으로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장병 내일준비적금은 금리가 6.5% 내외로 시중 은행보다 높은 편이다. 또 군 복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함께 부르는 평화의 노래 The-K은빛동행 'DMZ 철원 평화관광' 평화, 사랑, 화합의 DMZ 청춘열차를 타고

시대의 중심에서 변화한 현장의 목적은 크나큰 행운일 수 있다. 남북 화해 무드가 무르익는 요즘, DMZ(Demilitarized Zone, 비무장지대) 철원으로 향하는 The-K은빛동행의 발걸음이 특별한 이유다. 냉전 시대를 종식하는 은근한 봄바람을 만끽하러 나선 공제회원들. DMZ 철원 평화관광 현장에 따라 나섰다.

글 이경희 사진 황원



비무장지대 혹은 평화지대로의 여행

서울역에 정차되어 있는 '서울-연천-백마고지'라고 쓰여 있는 '평화열차 DMZ트레인'. 천장부터 벽, 바닥까지 바람개비, 연꽃, 풍선 등 알록달록한 상징으로 가득한 열차에는 철원의 이모저모를 담은 사진이 가득 있어 참가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덜컹덜컹 드디어 기차가 출발했다. 세월을 품은 기차 밖으로 사이다와 달걀을 먹어야 할 듯한 풍경이 펼쳐지고, 아픈 과거이자 현재, 희망을 품은 미래 도시 철원에 조금씩 가까워져 갔다. 백마고지 지역에 도착하자 알싸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청정철원'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 맑은 공기에 모두가 크게 심호흡을 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두루미평화마을체험관에서 철원군 주민이 준비한 뷔페식 상차림이다. 철원 오대쌀로 지은 밥, 미역국, 호박고지, 콩나물, 두부부침, 제육볶음, 수육, 노란 배추와 상추까지 푸짐했다. 담백하고 맛있어 꼭 집밥 같이라며 공제회원 모두가 즐겁게 식사를 마쳤다.

가슴 아픈 현대사의 중심지를 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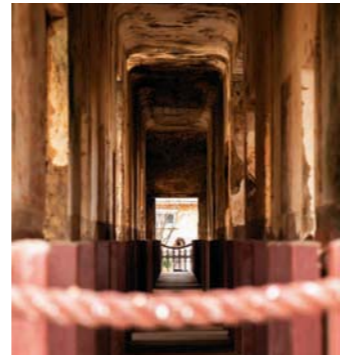
오늘 첫 번째 행선지는 백마고지전적비다. 철원군 북서쪽에 위치한 백마고지는 한국전쟁 당시 국군과 중공군이 이곳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인 곳. 열흘 동안 주인이 스물네 번이나 바뀔 만큼 혈투가 벌어졌었다.

동행한 철원군 문화해설사는 "이곳이 백마고지라고 불리게 된 것은 심한 포격으로 산등성이 무너지면서 백토가 드러나고, 그 모습이 마치 백마(白馬)가 쓰러져 누운 것처럼 보여서다"라고 설명하며 "백마고지는 중부 전선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철의 삼각지대(철원·김화·평강)' 중 하나인 철원평야와 서울을 연결하는 군사적 요충지였던 만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주요 지역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양쪽으로 태극기가 도열해 있는 언덕길을 천천히 올라갔다. 까마득히 솟은 위령비에는 전사자 이름이 적혀 있고, 그 뒤편에는 모은숙 시인의 시 '백마의 얼'이 새겨져 있어 호국 선열의 영혼을 위로한다. 좀 더 위로 올라가자 대형 태극기 게양대가 보인다. 그리고 저 멀리 이야기로만 듣던 백마고지가 보였다.





치열한 전투 속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난 곳, 낮지만 묵직한 존재감에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다음 방문지는 노동당사다. 2002년 등록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된 이곳은 북한이 지은 러시아식 건물로 무철근 콘크리트로 지었다. 한국전쟁 당시 맞은 포탄과 총탄 자국이 형형하게 남아 있다. 건설 당시 지역 주민들에게 강제로 돈을 뜯고 인력을 동원해 만들었다. “내부 공사를 할 때는 열성 공산당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건물 안쪽은 철저히 비밀로 부친 거지죠. 이곳에 잡혀 들어가 살아 돌아온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서태지와아이들 뮤직비디오 촬영지, KBS <열린음악회> 개최로 이제는 철원 관광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소로 자리 잡은 노동당사. 공제회원 모두가 건물 안을 돌며 전쟁의 상흔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평화를 기원하다

다음은 2014년 민간인에게 처음 개방된 멸공OP를 방문할 차례. 민통선 안에 위치해 사전 예약과 군 승인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작은 건물에 들어서면 동영상 관람과 함께 현역 군인의 생생한 설명을 직접 들을 수 있다. 백골부대의 용맹함과 위상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유리 창문 밖으로 펼쳐진 한탄강, 민들레벌판, 건천리마을, 오성산 등의 모습에 모두가 큰 관심을 기울였다. 나이가 지긋한 한 공제회원은 북한과 이토록 가깝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 난다며 창밖 풍경에서 눈길을 떼지 못했다. 금강산 전기철도 교량 걷기 시간도 남다른 의미를 주었다. 1926년 철원역을 시발점으로 종착지인 내금강까지 달린 기차, 일제의 자본 수탈을 위해 지은 철길은 지금은 안보 관광의 주요 코스 중 하나로 의미가 바뀌었다. 지나간 시간이 품은 가파른 변화가 교량 걸음걸음마다 사무치게 다가왔다. 공제회원과 동행자 모두가 발밑에 펼쳐진 유려한 한탄강의 모습과 풍경에 연신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댔다. 한숨 쉬며 탄식한다는 한탄(恨歎)이 아니라 큰 여울을 뜻하는 한탄(漢灘)강은 의미를 오해해 미안할 만큼 아름답고 고고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다. 조금 더 이동해 DMZ 철책길 걷기까지 마친 뒤 마지막



코스, 월정리역을 향해 출발했다. 무엇보다 공제회원이 감탄을 감추지 못한 것은 철원에서 겨울을 나는 두루미들의 모습이였다. 암수 한 쌍 혹은 새끼를 포함한 가족이 무리지어 다니는 두루미는 추수가 끝난 논밭에서 콧코크 날알을 쪼아 먹으며 한가롭게 철원 주민과 공생하는 것. 간혹 보이는 날개 편 커다란 독수리의 모습도 이곳 철원에서만 볼 수 있는 풍광이다. 도로를 달리던 와중에 한두 마리가 아닌, 두루미 떼가 퍼덕이며 날아가는 모습을 만나는 행운까지 누리니 해설사가 “두루미를 만나면 한해 운수가 좋다. 여러분 모두 2019년도에 복 많이 받으실 것”이라고 말해 여기저기서 웃음과 함께 큰 박수를 보냈다. 월정리역은 본래 서울-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간이역이었다. 남방한계선에 근접한 최북단에 위치한 역으로 지금은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팻말과 폭격으로 부서진 화물열차의 골격만이 남아 있다. 향후 남북을 오가는 열차가 들어선다면 가장 주목받을 지역이 바로 이곳일 터. 부지런히

오가며 부서진 열차를 들여다보았다. 어느새 겨울의 이른 저녁이 찾아들기 시작했다.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 백마고지역에 도착했다. 오늘 하루 동안 달리던 남북 관계와 화해 무드를 실감하는 소회를 나누며 곳곳에서 기념 촬영을 하는 공제회원들 표정에는 벽참과 우려, 감동의 감정이 복잡하게 교차했다. “중요한 건 다음 세대가 누릴 평화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한 공제회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오래도록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천혜의 자연을 만날 수 있었던 DMZ, 아픈 역사와 시간이 공존한 이 시간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후손을 위한 평화로 나아가는 작은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



MINI INTERVIEW



이평호 회원 · 김연이 님

양구 GOP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무려 37년 만에 전방에 왔습니다. 그때는 절대 두 번은 안 온다고 했는데(웃음) 이렇게 아내와 함께 다시 와서 감회가 새로워요. 군 복무와 달리 여행이다 보니 조금 다른 시각으로 철원 DMZ를 바라보게 되네요. 좋은 기회를 준 교직원공제회 측에 감사드립니다.



서재덕 회원 · 정찬영 회원

저희는 멸공·반공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행으로 정말 많은 변화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선후배이자 멘토·멘티로서 오랜 인연을 맺어왔는데 노후에 함께 여행을 다닐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교직원공제회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김월계 회원 · 구윤숙 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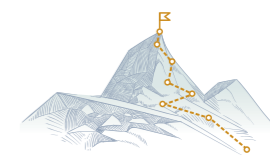
저희는 오늘 여행에서 정말 오랜만에 우연히 만난 동료예요. 각자 남편, 친구와 왔는데 낮이 익더라고요. 무려 25년 전, 같은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예전에 직원연수와 안보교육으로 DMZ에 종종 올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와는 다른,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이 겨울, **눈**의 찬란을 담다



The-K지리산가족호텔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과 함께하는 겨울 산행



설산, 환상의 파노라마를 오르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의 산은 덕분에 1년 내내 다채로운 정취를 뽐낸다. 봄이면 파릇하고 여름이면 울창하고, 가을이면 울긋불긋하니 그중의 백미는 누가 뭐라 해도 새하얀 겨울의 설산이다. 이 겨울, 저기저 설산을 오르자 사방으로 확대인 시야가 눈부시다. 세상을 점점이 묘사하며 내리는 눈송이, 날리는 눈발 사이 들숨과 날숨의 기운이 거친 숨을 아련히 잠재운다. 휘몰아치는 바람 속 어딘지 안온한 기운은 나무가 내어주는 온기와 같다. 이대로 시간이 멈춘 듯 훑날리는 눈발도 까마득하다. 이 매력에 겨울 산을 오르나보다. 오늘 따라 눈 소식이 더없이 반갑기만 하다.

겨울 산은 편안하다. 뱀이나 땅벌이 있을 리 없고, 사방으로 트인 시야에 갈 길조차 환하다. 겨울 산은 또한 신비롭다. 순백의 눈꽃이 햇살에 반짝이 자 그 영롱함은 실로 눈부시다. 고즈넉한 자태의 설경 앞에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 찬 바람에 으스스 소름이 돌아도 하얀 눈은 내리면 내릴 수록 반갑기 그지없다.

하지만 보통의 계절보다 날씨가 더욱 변화무쌍한 겨울 산행은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자칫 소홀한 준비와 무리한 산행이 크고 작은 산악 안전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 먼저 등산 전 준비 등의 일기 파악은 필수다. 해가 짧은 겨울은 여름철보다 낮 시간이 평균 5~6시간 짧은 점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산의 기온은 고도 100m 올라갈 때마다 0.7°C씩 낮아진다. 여기에 바람까지 불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진다. 체온을 보존하기 위한 등산 장비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특히 눈이 많이 쌓이면 평소보다 많은 체력과 시간이 소요되니 이 또한 감안해 코스와 시간을 배분해야 하겠다.

드넓은 설원이 눈앞에 장엄하게 펼쳐진다. 한껏 피어오른 열기는 차가운 바람에 차분히 가라앉고, 한숨 크게 들이쉬니 실로 청량한 기분이 든다. 산등성 가득 핀 새하얀 눈꽃도 눈부신 햇살 아래 알알이 반짝이는 신기루와 같다. 이 겨울, 저기저 하얀 설산을 올라보자.

글 엄용선 사진 제공 The-K지리산가족호텔 ·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겹겹이 새하얀 봉우리, 지리산 겨울 산행

겨울 산행의 백미, 지리산을 오른다. 지리산은 높이 1915m로 두 번째로 높은 산이며, 행정구역상 전남북과 경남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 제1호로 국내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입산의 길목, 잘 다져진 정교한 흙길 위로 새하얀 눈이 수북이 쌓여 있다. 왕복 3시간, 고산지대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하는 등반은 걸음걸음이 다채롭다.

천왕봉(1915m), 반야봉(1732m), 노고단(1507m)을 중심으로 셀 수 없이 많은 봉우리가 병풍처럼 펼쳐지며 노고단의 운해, 피아골 단풍, 반야봉의 일몰 경관, 세석 철쭉, 불일폭포, 벽소령의 밝은 달, 연하봉 선경(仙景), 천왕봉 일출, 섬진강清流(淸流), 칠선계곡이 지리 10경으로 분류되며 절경으로 유명하다.

특히 겨울의 지리산은 눈과 함께 서릿발이라 불리는 상고대가 나뭇가지마다 내려앉아 그 풍경이 수려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성삼재-노고단 코스(3.5km)는 지리산 3대 주봉의 하나인 노고단을 가장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루트다.

노고단 정상에 오르자 저 멀리 얼어붙은 섬진강 물줄기가 보인다. 시간과 체력이 허락한다면 돼지평전까지 다녀오는 것도 좋다.

다음으로 법계사 코스는 중산리에서 시작해 법계사, 천왕봉, 장터목대피소(9시간)를 오른다. 이는 천왕봉을 오르는 가장 짧은 코스지만 칼바위부터 천왕봉까지 계속되는 가파른 경사 탓에 초보자에게는 다소 무리일 수 있다.

그 외 9개의 크고 작은 소(沼)와 기암괴석을 감상할 수 있는 구룡계곡 코스(3.1km, 2시간), 서쪽 노고단에서 동쪽 천왕봉까지 지리산의 주요 봉우리를 전망할 수 있는 삼신봉(삼성궁) 코스(8.3km, 5시간) 등이 있다.

지리산 겨울 산행은 The-K지리산가족호텔과 함께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지리산 산행을 준비하는 공제회원을 위해 산행 픽업 서비스를 제공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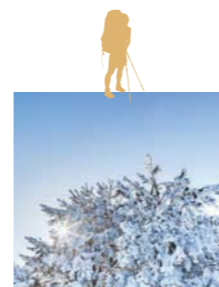


다. 서비스 구간은 정령치~노고단 코스, 지리산둘레길 코스 두 곳이다. 예약 인원이 5인 이상이어야 가능하며, 금액은 2만원이다. 객실 1박, 산행 픽업 서비스, 온천 이용권 2인으로 구성된 패키지 상품(10만 5000원부터)을 이용해도 좋겠다. 지리산 겨울 산행을 마무리했다면 The-K지리산가족호텔의 온천도 추천한다. The-K지리산가족호텔의 온천은 천연 게르마늄 성분을 함유한 온천수로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겨울 산행으로 쌓인 피로를 달래기 충분하다.

The-K지리산가족호텔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317
061-783-8100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
제주 제주시 탑동로 66
064-729-8100



눈 쌓인 평원, 겨울의 한라산을 가다

1월의 한라산은 하늘과 맞닿은 눈 쌓인 평원과 눈꽃으로 절경을 이룬다. 특히 구상나무에 핀 눈꽃의 환상적인 자태는 오직 겨울의 제주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장관이다. 그래서 이맘때 한라산은 제주의 겨울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코스다.

한라산(1947m)은 영실, 성판악, 어리목, 관음사, 돈대 등 다섯 가지 등반 코스가 있다. 가장 대중적인 코스는 성판악과 백록담을 왕복하는 것이다. 시작점에서 진달래대피소까지 3시간, 대피소에서 백록담 정상까지 1시간 30분으로 총 4시간

30분이 소요된다. 경사는 완만한 편이나 오랜 시간 등반해야 하므로 체력 안배에 유의하자. 여기에 조금 더 힘을 내 백록담에서 삼각봉대피소를 지나 관음사까지 가봐도 좋겠다. 특히 삼각봉대피소에서 백록담에 이르는 코스는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해 겨울 한라산의 다양한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다. 적은 발품으로 한라산 설경의 모든 매력을 만끽하고자 한다면 단연 영실 코스를 추천한다. 어리목에서 출발해 뒷세오름을 지나 영실로 도착하는 이 코스는(12.6km, 6시간 소요) 오르막 등산로 아래 보이는 거대한 영실계곡과 병풍바위가 장관을 이룬다. 이는 제주의 영주십경(瀛州十景) 중 영실기암으로 제주에서도 손꼽히는 경관을 이룬다. 6.8km의 어리목 코스는 조금 수월하게 겨울의 한라산을 즐길 수 있는 눈꽃 트레킹 코스다.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 출발해 사제비동산과 만세동산을 지나 뒷세오름대피소로 연결되는 코스로 대략 3시간이 소요된다.

한라산 산행의 시작과 마무리, 라마다프라자제주에서 겨울 산행에서 장비 준비는 매우 중요하다. 행여나 장비가 없더라도 걱정하지 말자. 제주공항 근처 '오셰어'에서는 아이젠과 스패츠, 설산용 스틱 등 겨울 산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갖추고 있다.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과 제휴로 오셰어는 호텔 컨시어지를 통한 논스톱 픽업과 반납(유료 서비스)이 가능하므로 산행 준비에 전혀 부담이 없다. 또한 좀 더 풍성한 겨울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 겨울 제주 풍경의 또 다른 장관을 이루는 드넓은 감귤밭에서의 체험과 함께 후지필름의 스마트폰용 필름 그래픽 서비스를 제공하는 '윈터 플레이어' 패키지나, 맥주 세트 교환권이 포함된 '편&비어' 패키지를 주목할 만하다. 미온수풀인 수영장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수영도 추천한다. 산행으로 고단해진 몸이 자연스럽게 풀린다. 새해, 다채로운 눈꽃 산행으로 겨울을 만끽해보자.



한국교직원공제회

공제회 제108회 대의원회 개최 2019년 총자산 37조5천억원 전망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지난 11월 26일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제108회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2019년도 기본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교직원공제회 총자산은 37조 5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18년 말 추정 자산 35조원 대비 2조 5천억원이 증가한 규모다. 또 2019년 공제회 총 회원수 추정치는 80만9천 명으로, 2018년말 추정치 79만2천명보다 1만7천여 명 늘어났다.

2019년 자산 배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문은 금융투자 자산이다. 13조406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34.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체투자에는 10조6960억원(28.5%), 기업금융에는 5조1002억원(13.6%)을 배분할 계획이다.

2019년 총수익 목표는 1조7260억원이며, 구체적으로 ▶금융투자 5348억원 ▶대체투자 5271억원 ▶기업금융 2382억원 등으로 설정했다.

차성수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2019년에도 신뢰받는 금융·복지서비스로 교육가족의 행복한 삶에 공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영목표 달성은 물론 회원 및 회원가족, 더 나아가 교육가족의 더 큰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대의원회=교직원공제회 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된 공제회 최고 의결기구다. 17개 시·도별로 일반회원 78명, 특별회원 4명의 총 82명으로 구성되며, 정관 변경,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심의, 결산보고, 기타 공제회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 등을 의결한다.



한화리조트 공제회원 이용객실 확대... 거제 리조트 추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최근 한화리조트의 무기명 회원권을 추가로 매입해 공제회원 이용 가능일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제회원이 전국의 한화리조트 체인을 이용할 수 있는 연간 숙박수는 3만2천여 박에서 1만4천여 박이 더 늘어났다. 또 한화리조트가 지난 10월 오픈한 경남 거제의 '거제 벨버디아'도 회원 전용 코드로 추가 지정됐다. 교직원공제회는 지난 2007년 한화리조트와 업무 제휴를 통해 무기명 회원권을 매입하고 공제회원에게 전국 13개 리조트의 객실 및 부대시설을 리조트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17년 대명리조트의 무기명 회원권을 구입해 회원전용코드로 지정, 공제회원이 리조트 회원가로 이용하게끔 하고 있다. 한화대명리조트 객실예약은 티처월드(teachiworld.com)에서 가능하다. 이밖에 교직원공제회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The-K호텔서울,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The-K호텔경주, The-K설악산가족호텔, The-K지리산가족호텔도 공제회원은 정상가 대비 20~70% 가격으로 이용 가능하다. 객실예약은 공제회 홈페이지(ktcu.or.kr)에서 하면 된다.

제3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 작품 공모

제3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의 출품작을 1월 18일까지 공모한다. 응모방법은 웹하드(www.webhard.co.kr / 아이디 : ktcu0406, 비밀번호 : 1234)의 GUEST 폴더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작품·작가 사진과 함께 업로드하면 된다. 응모작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작품이 전시된다. 선정 결과는 2019년 2월 중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발표 한다. 선정된 회원은 작품 접수(반입) 기간에 출품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제3회 한국교직원미술대전은 4월 6~12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제회 홈페이지 참조.



제8회 대한민국스승상 후보자 추천 1월 18일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교육부는 2018년 1월 18일까지 '제8회 대한민국스승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대한민국스승상은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학생 지도와 교육 혁신 등 교육·학술·연구 활동에 헌신한 우수한 공적이 있는 교원을 수상자로 선정해 우대하고 참다운 스승상 정립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국내 최고 권위의 교육상이다. 추천대상은 유치원, 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전문대학,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현직 교원이다. 추천 방법 및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대한민국스승상.kr) 참조

▶ 시상내역

구분	인원	상금
대상	1명	2000만원
유아교육	1명	각 1000만원
특수교육	1명	
초등교육	3명	
중등교육	3명	
대학교육	2명	

※ 대상은 분야별 수상자 중 선정



The-K Family

The-K호텔서울, 뷔페 '더파크' 신년맞이 이벤트



The-K호텔서울의 프리미엄 뷔페 더파크는 새해를 맞아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연중 진행한다. 우선 매주 월·화 런치와 디너 타임에 방문하는 모든 여성 고객에게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레이디스 데이'를 운영한다. 또한 일요일 디너 타임에는 모든 고객에게 20% 할인해 주며, 주중 성인 고객에게는 생맥주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중복 할인 불가) 더파크 이용 가격은 성인 기준 4만3000~5만6000원이다. 한편, The-K호텔서울은 2월 28일까지 '윈터 패키지'도 선보인다. ▶패키지A 일반실 1박, 우체로 모닝 뷔페 2인 15만원 ▶패키지B 일반실 1박, 더파크 저녁 뷔페 2인 18만원 ▶패키지C 일반실 1박, 서울랜드 자유이용권 2인 13만원이다. 패키지 이용 고객은 호텔 내 레스토랑 이용 시 15% 할인된다.

☎ 02-571-8100, 02-526-9562(더파크)

The-K호텔경주, 온천·시니어 패키지 선보여



The-K호텔경주는 겨울철을 맞아 '온천 패키지'를 2월 28일까지 선보인다.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 11만1000~17만0000원 ▶스탠다드 객실 1박, 사우나 2인 이용권 9만9000~15만4000원 ▶스탠다드 객실 1박, 조식 2인, 사우나 2인 이용권 12만5000~18만4000원이다. 또한 1964년 이전 출생한 공제회원을 위한 '시니어 특별 패키지'도 3월 31일까지 판매한다. ▶패키지A 객실 1박, 조식 2인 10만6000원 ▶패키지B 객실 1박, 조식 2인, 온천사우나 이용권 2인 12만원이다. 특별 패키지 이용 고객은 꽃마을경주한방병원 한방건강검진, 씨네규 영화관람권, 경주시티투어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설 연휴(2월 2~5일)는 패키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 054-745-8100

The-K지리산가족호텔, 객실·연회장 리모델링 완료



전남 구례에 위치한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134개의 객실을 보유한 콘도형 가족호텔로 가족 여행이나 단체 여행 숙소로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최근에는 객실 및 연회장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 내부 시설을 새롭게 정비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객실 가구류도 교체할 예정이다.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랜드볼룸을 비롯해 중·소형 연회장까지 고루 갖춰 참가 인원에게 맞는 각종 연수 및 워크숍 개최가 가능하다.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순천정원박물관, 화암사, 광한루 등 관광명소가 위치해 남도의 맛과 멋을 즐기기에 좋고, 사계절 온천을 할 수 있는 온천 사우나시설도 갖추고 있다.

☎ 061-783-8100

The-K서드에이지, 최소 계약 기간 1개월로 변경

실버타운 The-K서드에이지는 올해부터 단기 계약 방식의 최소 계약 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변경한다. 단기 계약 방식은 건강증진을 위해 요양 등을 목적으로 단기간 전원생활을 하려는 회원을 위해 도입됐으며 1개월부터 최대 1년까지 계약 가능하다. 또한 '전환 상담 이벤트'를 1월 31일까지 진행한다. 60대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입주 상담 시 1박 할인을 준다. 할인권 소지자는 1인당 1만원(식대 별도)의 비용만 부담하면 서드에이지 입주 체험을 할 수 있다. 경남 창녕에 위치한 The-K서드에이지는 단순한 주거 기능 외에도 의료, 문화, 레저 등의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타운이다. 서드에이지 입주 방식은 ▶장기 임대 계약 ▶단기 계약 ▶별장형 계약이 있으며 계약 후 일정액의 입주보증금과 월 이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 055-530-8211

The-K손해보험, 공유 차량 전용 보험 출시

The-K손해보험은 카셰어링 서비스 업체인 '딜카'와 제휴를 맺어 '에듀카 원데이 자동차보험(법인)' 상품을 지난 12월 출시했다. 카셰어링(공유 차량)은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로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보험 연구원에 따르면 사고발생률이 일반 개인차량의 10.8배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피해가 부담된다면 자차 보험(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하는 것도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이다. 이번 제휴로 딜카 이용 시 딜카 이용 요금과 함께 The-K손해보험의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한 번에 결제, 자차 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료는 1일 기준 약 6000원(차종에 따라 상이)으로 하루 단위부터 최대 30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 1566-3000

<The-K 매거진> 1월 즉석당첨 이벤트

이벤트 기간
1월 1일 ~
1월 31일

새해엔 다 잘 돼지~

2019년, 즐거운 시작이 되길 바라며 900개의 선물을 쏩니다!
황금돼지의 행운이 당신과 함께하길~♪



100개



신세계상품권
1만원권(모바일)

300개



GS25 편의점 상품권
5천원권(모바일)

500개



스타벅스 디카페인 아메리카노
Tall 사이즈(모바일)

참여 방법 경품 옆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1월 즉석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유의 사항
•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은 2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를 정확히 입력 후 응모해주세요. 오기재 또는 미기입으로 인한 배송 오류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벤트 응모는 1월 1인 1회만, 당첨은 경품당 1인 1회까지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부정행위 방법이나 허위 정보로 이벤트 참여 시 전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참여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빛이 고요롭기까지

엄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아름다움은 관계에서 시작된다”라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성은 모두 아름답다”라고 늘 듣고 자란 덕분일까요. 2018년 올 한 해도 많은 분과 아름다움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곁에서 묵묵히 함께 걸으며 힘을 주셨죠. 그렇게 그들과 느리게 걷는 길이 좋았습니다. 발을 맞춰 걸으며, 잠시 쉬다가, 때론 양끝에서 걷기도 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잔잔하지만 역동적이며, 발랄했던 모든 시간이 아름다웠습니다.

2019년 새해 첫 호의 편집후기를 적어 내려가지만, 2018년 12월의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하는 순간. 한 달을 앞서 설산(雪山)을 걷는 기분일까요. 묘한 시간입니다.

새해 첫 호가 나오기까지 많은 분이 고생하셨습니다.

수많은 별이 자신의 빛을 뽐어 길을 밝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없었다면 <The-K 매거진> 2019년 새해 첫 호가 이리도 빛을 밝혔을까요.

강원 고성에서도 고요로운 빛은 여전했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의 영원한 주인공 박점숙 안산 성호중 교장선생님과 신정숙 서현중 진로부장님과 함께였거든요. 두 분의 환한 기운 덕분에 웃느라 얼굴이 아릴 정도였죠. 인간 비타민 이경희 기자님. 당신의 긍정 에너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영하 15°C 안팎의 추위에서 일출 사진을 건지기 위해 겨울 바다에 발을 담그신 한상무 실장님. 실장님의 맨발,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은정 디자이너님의 손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으면 <The-K 매거진>은 더욱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한 달 31일 꼬박 시간을 애쓴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The-K 매거진>이 있었습니다.

빛을 퍼뜨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촛불이 되거나 혹은 그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미국 소설가 이디스 워튼의 글이 와닿는 2018년의 마지막 달,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모든 순간이 모여 우주의 선을 잇듯 촛불이 되어 혹은 거울이 되어 모두에게 빛이 닿기를. 연말과 새해 사이의 틈에서 감사함을 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